김일성동지와 위 대 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 관 지 로 당 중 앙 원 회 フレ 선 동

제68호 【루계 제24481호】주체103(2014)년 3월 9일(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주 체 명 혅 따라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설

## H 원 ᅙ 한 사 선 거

로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 거의 날이 왔다. 온 나라가 높은 정 치적열의속에 이 경사의 날을 맞이 한 크나큰 긍지와 기쁨으로 설레이 고있다.

우리의 인민주권을 다지는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한결같이 떨쳐나 찬 성의 한표를 바치는것은 우리 인민 의 자랑스러운 풍모이다.

지금 전국의 모든 선거장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 화국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전체 선거자들의 드 높은 애국의 일념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있다. 애국의 한표, 찬성의 한 표로 우리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 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려는것 이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의지로 되 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 1 3 기 대의원 선거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 의 정권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 수하고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존엄높고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 로 빛내여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특 기할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선거자들은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 가하여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선거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 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 고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할것 입니다. »

우리 공화국정권은 근로인민의 자 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 오 로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 의 정권이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력사적뿌리가 내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대변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을 숭고 한 사명으로 내세우고있는 여기에 우리 공화국정권의 혁명적본태가 있 고 우월성이 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세워진 사회제도와 정권도 각이하 다. 우리 나라, 우리 인민정권과 같이 실시하는 정치와 베푸는 시책모두가 인민의 행복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 고 그 실현을 위한데로 지향시켜나 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정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세기를 이어가며 자주적인간의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 고있는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우에 세 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워주시였기때 문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정권 건설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고수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모실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되고 김일성-김정일주의 가 공화국의 유일무이한 지도적 지침으로 심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되게 되였 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우리 인민정권의 혁명적성격이 변함없이 고수되고 공화국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이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지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정권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며 우리 인민모두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함으로 써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야

이번 선거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 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 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된다.

우리 인민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 책의 집행자이고 강성국가건설의 강 력한 정치적무기이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 에 높이 모시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오늘의 현 실은 우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 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

이번 선거는 우리의 최고주권기 판을 참다운 인민의 대표들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공화국정권을 반석 같이 다지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 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조 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민정권의 강

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 하여온 참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 들이다. 인민군군인들과 로동자, 농 민,지식인,일군들을 비롯한 대의 원후보자들은 지난 기간 수령결사 옹위투사,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 자. 철저한 관철자. 인민의 충복으 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왔다. 당과 수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고 인 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 하는 이런 전위투사들로 최고주권기 관이 꾸려질 때 공화국정권의 혁명 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뚜렷이 과 시되고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보다 큰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 게 될것이다.

이번 선거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 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중 요한 정치적계기로 된다.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본원천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최강 의 무기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우리의 일심단결 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더욱더 공고해지고있다. 인 민정권의 강화발전과 우리 식 사회 주의의 불패성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 주의는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우리 식 사 회주의가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그 어떤 천 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의 기치 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함으로 써 우리의 일심단결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 리는 이번 선거에서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된 당과 수령 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공화국정 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사회주의 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해나가려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 게 될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앞 에 나서는 지상의 과업이며 공화국 정권의 최대의 사명이다. 우리 공화 국정권은 창건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 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전체 조 선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으로 되고있 다. 공화국정권의 필승불패성을 힘 있게 과시하게 될 이번 선거는 우리 군대와 인민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 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민 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나 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주의 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전체 인민이 대의원선거에 한사람 같이 참가하여 충정의 한표, 찬성의 한표를 바치는것은 우리 인민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분 출이다.

모든 선거자들은 존엄높은 선군조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

선의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적극 참 가함으로써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 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모든 공민들은 인민정권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오늘의 선거에 참가하 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의 주체적정권건설업적은 우리 조국 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다. 우리는 아 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고 하여도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하나하나의 선거표에는 우리 인민정권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 민의 충정의 마음이 담겨져있다. 모 든 선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 답게 내 나라,내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빛내여나갈 고결한 마음을 안고 이번 선거에 참 가하여야 한다. 누구나 인민대중중 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엄과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마운 은덕을 가슴뜨겁게 새겨야 한다.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을 령도자 로 높이 모시고 공화국정권의 품속 에서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가는 우 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선거장들마다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 다. 장구한 력사적투쟁속에서 우리

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한 인민, 피어린 혁명의 전취물들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의 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천만 리길을 끝까지 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선 군의 길은 주체혁명의 영원한 승리 의 길, 우리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번영의 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번영 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뗘세우기 위 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 야 한다.

모든 공민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있는 우리 인민정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며 공화국의 존엄과 필승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심장 깊이 새겨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 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전 위투사, 열혈의 동지로서의 영예를 빛내일 일념을 안고 선거에 적극 참 가하여 충정의 한표를 바쳐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선군혁 명의 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 억척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모든 선거자들은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찬 성투표함으로써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 애 하는 김정은동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로 당 동 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군 최 卫

김

사 령 히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의 영광스러운 3월8일혁명 51돐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적대적인 침략세력들의 공격에 맞서싸우는 수리아를 지지해주고계시는 각하와 귀국의 립장을 높 이 평가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 리 아 아 랍 공 화 국 대 통 령 ヒ 근 2014년 3월 6일 디마스끄

## 평양산원에 넘치는 친어버이사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평양산원 에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사랑의 전설이 또다시 생겨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산원 에 입원한 산모들을 비롯한 녀성들 을 위하여 신선한 잉어를 보내주시

였다. 7일 오후 잉어를 가득 실은 자동 차가 소문도 없이 평양산원에 들어 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산모들의 건 강에 잉어가 좋다고 하시며 펄펄 뛰 는 물고기를 한시바삐 산원으로 보 내주도록 하시였다는 이야기를 감동 깊이 전해들은 산원의 일군들과 녀 성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

였다. 평양산원의 산모들과 녀성들을 위 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중한 보약 재들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하늘같은 은정을 가슴에 새기며

지난 2월 세쌍둥이를 낳은 혜산시 혜산동 45인민반 전옥숙녀성은 이 날 저녁 잉어탕이 오른 식탁을 마주 하자 감격에 목이 꽉 메여 선뜻 수저 를 들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 게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산모들에게 잉어탕, 잉어죽도 먹이도록 다심하게 이르시였다는것을 친정어머니가 알

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것이다. 궁전같은 평양의 산원에서 세쌍둥 이를 품에 안은 기쁨도 끝없는데 우 리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 그토록 마 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접하고보니 그이께 무슨 말로 감사 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제일로 아끼 시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정녕 우리들이 한생토록 안겨 살 행복의 요람이다.

성과적으로 수술을 받고 두번다시 태여났다는 옹진군 옹진로동자구 23인민반 한순옥녀성은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어제는 찬바람이 불어치는 전선길 에서 름름한 녀성비행사들을 한품에 안아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시고 오 늘은 산원에서 녀성들의 명절을 맞 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이 더더욱 못견디게 그리워진다. 노래에도 있듯이 원수님과 우리 녀성들. 인민들사이에 피줄처럼 맺어 진 정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 가를 페부로 절감하게 된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 쳐도 비기지 못할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큰절을 올린다.

평양산원 과장 장택순은 다음과

은정어린 선물들을 가득 실은 자 동차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산원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꽉 차있는 녀성들을 위한 의료봉사전당

임을 가슴뜨겁게 느끼군 한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이곳에서 최 상의 특전을 누리고있는 우리 산모 들처럼 복받은 녀성들은 세상에 없

을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산모들에 게 그대로 가닿도록 치료사업에 온

갖 정성을 기울이겠다. 평양산원에 꽃퍼난 사랑의 전설은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인덕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국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새겨주며 어머니당의 령도를 받들어 충정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갈 혁

명적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공화국공민

우리는 지금 함주군 조양리에 새 겨진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을 전 하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 서있다.

나라의 평범한 할머니가 어버이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린다. 빼 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나라의 주 인으로 내세워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버이께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향기그 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린다. 그 어떤 공식석상이나 국가행사장이 아니라 이름없는 산골마을에 기별도 없이 문득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 어푸 러지듯 달려가 안기며 고마움의 격 정을 터뜨리는 조양리 할머니,

뜻깊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 원선거를 하는 오늘에는 그 꽃다발 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던 찬성의 한표로 안겨온다.

주체조선의 100년사에 대한 인 민의 평가, 력사적총화가 이 불멸의 화폭에 절절히 담겨있다.

불과 10여년전까지만 해도 무권 리와 천대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농 촌녀성이 한나라의 수령과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뜻과 정을 나누는 력사 의 화폭에서 김일성민족이 한목소리 로 터치는 무한한 긍지가 진폭이 큰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나는 이 나라의 공민이다!

우리 공화국이 선 이후 어디서나 이 말을 들을수 있었다.

공장과 농촌, 일터와 마을 그 어디 를 찾아보아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일군이기 전에, 혁신자, 공로자이기 에 앞서, 과학자, 문필가라는 호칭보 다 먼저 공화국공민이라는 자부가 얼마나 소중히 자리잡고있는가를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기들 선거 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모시고 공화국공민의 영예를 한껏 떨치고싶은 열망이 온 나라를 진감하고있다.

공화국공민, 바로 여기에 국가주권 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정권의 참다 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 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온 우리 인민 의 최대의 자랑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 권을 장악하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

령토와 함께 국가형성의 기초를 이루는 공민의 권리는 사회성원이 이 아니다.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국권을 강탈당하였던 지난날 우리 인민은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도 말살당 하였다.

입이 있어도 제 나라 말을 할수 없 었고 땅이 있어도 묻힐 곳이 없었으 며 자기 이름마저도 빼앗겨야 했던 불쌍한 인민에게 진정한 정치적권리 와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인민혁 명정부, 그것은 세계정권사에서 처음 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였고 정권문제해결을 위한 간고한 투쟁속 에서 마련된 혁명의 전취물이였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주체 2 2 (1933)년 3월 왕청 제5구 인 민혁명정부수립을 위한 집회에 참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정에 넘쳐 하시던 력사적인 연설 《인민 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의 구절구절이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 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 인으로서 인민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 나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 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 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정권입니다. …

우리 인민은 처음으로 정권의 진 정한 주인이 되여보았다. 인민혁명정 부가 안겨준 땅에서 마음껏 농사도 지어보았고 자식들을 아동단학교에 보내여 무료공부도 시키였다. 나는 인민혁명정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낌없는 지성을 쏟았고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피도 흘렸으며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력사는 그들의 모습에서 인민의 참다운 정권이 낳 은 첫 《공민》들을 보았다.

비록 이역땅의 이름없는 마을에 세워졌던 인민혁명정부였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여기서 해방된 새 조국땅에 서게 될 인민의 새 나라를 그려보시였다.

밀영의 귀틀집 등잔불밑에서 날이 밝도록 심지를 돋구시며 《조국광복 회 1 0 대강령》을 구상하실 때에도 그이의 가슴속에서 용암마냥 끓어번 진것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새세 상에 대한 끝없는 열망이였다.

백두산위인의 그 의지가 《조국광 복회 1 0 대강령》의 첫 조항에 이렇

《1.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 법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 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 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외세에게 빼앗 겼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혈전이 기도 하였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해 방된 새 조선의 첫 공민에로 가는 피 어린 길이기도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불바다 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내 나라, 인민 을 주인의 지위에 높이 올려세워준 국가주권이기에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때 이 나라의 첫 공민들은 다함없 는 감사의 정을 담아 자기들의 정치 적권리의 행사로 위대한 수령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시였고 국가수반으로 경건히 추대 하였다.

공화국공민의 영예는 절세의 위인 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 에 실려오는 민족적긍지였고 더없는 행복감이였다.

그 영예, 그 존엄을 지키고 사수하 고 빛내이기 위해 공화국의 첫 세대 들로부터 전화의 용사들, 오늘의 후 대들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공민 들은 수령결사용위를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생명으로 여기고있는것 이다. 그리고 대를 이어가며 한목소 리로 심장의 울림을 터치고있다.

나는 이 나라의 공민이다! 이민위천을 천품으로 지닌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셔야 평범한 인민도 주권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공민의 참된 권리를 누릴수 있다는것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정권건설 사, 이 나라 공민의 력사가 말해주는 진리이다.

이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선군혁명 령도따라 고난의 그 나날로부터 강성국가건설의 초행길을 걸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발걸음에 맞추어 새로운 주체 1 0 0년대의 진 군길을 다그치며 우리 군대와 인민 이 더더욱 심장깊이 새긴 철리이다. 공화국공민이 된다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것을 법 적으로 담보받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나라 공민이 되면 누구나 자식 들을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돈 한푼 내지 않고 전반적 1 2년제의무교육 을 시킬수 있으며 실력에 따라 희망

하는 대학에 보내여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할수 있다. 무상치료제 의 고마운 은정속에 태여날 때부터 자기 담당의사를 가지고 세쌍둥이 가 태여나면 당에서 안겨주는 은정 어린 선물과 국가의 전적인 보살핌 을 받으며 아무리 외진 섬이나 깊은 산골에 있어도 위급한 상태에 있으 면 비행기가 뜨는 은혜로운 사랑을 받아안을수 있다. 자기에게 설사 훌 륭한 옷 한벌 없다 하여도 근로의 땀이 나라의 강화발전에 이바지하 는 혁신으로 이어지면 최고인민회 의연단에서 국가정사도 의논할수 있고 지어 령도자가 차려주는 연회 에 참가하여 위인의 뜨거운 축복을

존

받는 영광도 지닐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누구 나 한목소리로 자부한다.

나는 이 나라의 공민이다!라고.

천만공민의 열렬한 흠모와 매혹, 끝없는 감사와 경탄속에 빛을 뿌리 는 이런 혁명주권, 인민정권은 이 세 상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 1 3기 대의 원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새로운 주체 1 0 0년대의 진군길

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하게 되 는 이 나라 공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6 0 여년전 공화국의 첫 세대가 어버이수령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 하며 받아안았던 환희와 격정을 그 후대들이 다시금 체험하게 된다.

주권에 대해 말할 때 누구나 먼저 생각하는것이 선거이다. 선거는 사 회의 정치적지반을 다지고 국가활동 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는 중대한 정치적사변이라고도 할수 있다. 사회 적집단의 성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권리의 하나가 바로 선 거이고 그 증표가 선거표이다.

선거표는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장 악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 는것으로 하여 계급적성격을 띤다. 해방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선 거표는 노예로부터 주인으로 된 운 명전환의 증서와도 같았다.

계급적원쑤들은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주권의 주인이 되 는것을 기를 쓰고 가로막으려고 갖 은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선거표를 잃으면 또다시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기에 우리 인민은 첫 민주선거로부터 공화국의 력사에

뚜렷한 력점들을 찍어온 모든 선거 들마다에 언제나 찬성의 한표를 바 쳐왔다.

인간의 참된 존엄과 행복을 찾아주 고 지켜주신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다 함없는 감사의 정이 그 선거표에 담 겨있었고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주인 의 권리, 절대로 잃을수 없는 공민의 존엄이 찬성의 한표에 비껴있었다.

인류력사와 더불어 선거의 력사는 오래지만 찬성의 한표라는 일심단결의 증표로 두 세기를 잇고 자기를 지켜온 것은 우리 인민과 우리 조국밖에 없다. 우리 정치의 본질을 모르고 우리 정권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 찬성투표라는 말의 의미를 도무지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공화국공민에게 있어서 선거표는

자기 운명의 밝은 앞날을 약속해주 는 증권이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 주권적담보이기 도 하다.

그것은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지고 우리 국가, 우리 제도 의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주며 공민 의 의무와 책임감을 심장깊이 새겨 주는 애국의 무게로 선군조선의 주 권건설사를 장식하고있다.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 에 또다시 높이 모시려는 절절한 념원과 간절한 소원을 담아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발휘할 력사의 순간이

뜻깊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혁명 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갈 신념 과 의지로 공화국공민의 권리와 존 엄을 행사하며 온 세계에 긍지높이 자랑하리라.

나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령도자로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당당한 공민이라고.

선거표를 들었다고 하여, 공민증을 가졌다고 하여 누구나 참다운 공민 이 되는것이 아니다.

공민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의무에 충실한 사람만이 진정한 공 민이라고 할수 있다.

누구나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공민 의 뚜렷한 자욱을 새길 때 뗫뗫이 자 랑하자.

나는 이 나라의 공민이다!라고.

# 한없이 겸허하신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 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 시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 가장 충직한 혁명전우이시였다.》

주체 7 1 (1 9 8 2)년 2월 송 림시는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 차게 끓어번지였다.

바로 이날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 원선거를 위한 제 5 0 1 호 송림선 거구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력사적인 선거자대회를 진행하게 되였던것이다.

도의 한 책임일군은 아침일찍 사무실에서 선거자대회와 관련하 여 미진된 문제가 없는가를 다시 금 세세히 검토하고있었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일군의 사무실로 들어서더니 다짜 고짜로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 는 선거자대회가 진행되는 장소에 그이의 초상화를 모시지 않았기에 이렇게 달려왔다고 말하는것이

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신의 초상화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허하신 다는것을 잘 알고있던 일군은 사 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 을지 몰라 망설이였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선 사람 들은 일군의 견해에는 전혀 상관 🔨 이 없다는듯 단호한 목소리로 당 장 평양으로 가서 당중앙위원회 에 청원하겠다고 웅성이였다.

너무도 간절하게 호소하는 사람 들의 말을 듣는 일군의 생각은 이 런 곬으로 흘렀다.

(이번에 진행되는 회의는 여느 회의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대 하는 력사적인 행사가 아닌가. 더 우기 선거장들마다에 평범한 대의 원후보자들의 사진도 게시하는데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는것 은 응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드디여 용단을 내린듯 일군은 책상 우에 있는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정중 히 받쳐들었다. 이윽고 전화가 련결되고 송수화기

본사기자 김 준 혁 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우신

음성이 울리였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말을 올린 다음 외람되게 전화로 제기된 문제를 보고드리게 된 사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보고를 다 듣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림시안의 근로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리해할만 하다고, 그러

나 자신의 초상화는 이미 이야기 한대로 내걸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송림시의 선거자들은 지금 당장이

라도 당중앙위원회를 찾아가 제기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려는 자기들의 소원을 무조건 성취하고야말겠다고 한다고, 그러 니 이번만은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도록 꼭 허락하여주 실것을 절절히 간청드리였다.

송수화기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 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군은 물론 사무실에 들어선 사람들의 심장은 곁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차게 높뛰였다.

이윽고 송수화기에서 결연하면 서도 정겨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울리였다.

송림시안의 근로자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잘 리해시켜야 하 겠다고, 황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송림시안의 근로자들이 평양에 청원하러 오겠다고 하면 그들을 잘 납득시켜 그만두게 하여야 하겠 다고 당부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누 구나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 라도 따와야 한다시며 그들의 가 슴속에 있는 자그마한 소원까지도 다 헤아려주시면서도 자신과 관련 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허용 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

이날 일군은 물론 사무실에 찾 아왔던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바로 여기에 우리 장군님의 모든 사업과 활동 의 목적이 있고 정력의 원천이 있 으며 생활의 좌우명과 인생관의 좌표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 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력사적인 선거자대회 장에는 끝내 그이의 초상화를 모시지

본사기자 정순학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심단결의 화원을 꽃피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사기자 림 학 락 찍음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 대화혁명사적지에서-

# 역사적인 선거의 날들이 전하는 일화들

# 평범한 교육자에게 하신 투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방주권기관 대 서시더니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선 의원선거에 참가하시기 위하여 선거 장소로 꾸려진 당시 평양제 1 유치원 을 찾으시였다. 명절분위기로 설레이 던 선거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감격과 흥분으로 더욱 끓어번지였다. 선거장에 도착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유치원을 어데서 꾸려주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대의원후보자인 유치원 원장과 교양원들, 학부형들의 힘으 로 꾸렸다고 말씀드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

## 하시면서 대의원후보자인 유치원 게 마음다지였다. 군 사 교 육 기 관 을 찾으시여

주체 9 2 (2 0 0 3 )년 8월 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군사종합 대학에 나가시여 인민군장병들과 함 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 하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 선거에

주체 4 5 (1 9 5 6)년 1 1 월 원장에게 투표하시고 그의 사진앞에 있는 좋은 사회제도이며 인민의 대 의원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일을 더 잘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 였다. 그러시고는 유치원을 잘 꾸려 놓았다는 치하의 말씀을 하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한없는 영광을 받아안은 주인공은 어버이수령님의 체취가 스며있는 투 표함을 어루쓸고 또 쓸며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을 교육 교양하는 사업에 한생을 바치리라 굳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 여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한없이 설레이였으며 장군님을 우러러 터져오르는 폭풍같 은 환호는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후보자인 조선인민군 군판 에게 투표하시고나서 그를 만나주시 여 뜻깊은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하 자구니께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 한 보살피심속에 대학이 우리 혁명무 력의 핵심골간양성기지, 군사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발전해온데 대하여 감 회깊이 말씀하시였다.계속하여

## 민 주 선 주체 3 5 (1 9 4 6)년 1 1 월 3일.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의 날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시의 어느 한 선 거장에 나가시여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투표를 하고 나오 시자 경축분위기로 들끓던 선거장에 환호성이 또다시 높이 터져올랐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걸음을 멈추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난생처음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선거에 참가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무력강화발전에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경 사로운 선거날에 받아안은 영광과 복에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 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우 리 당의 혁명무력강화발전에 적극 이 바지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 거의 날 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는 우리는 인민주권을 더욱 공고발 전시키기 위하여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새 조선건설에 적 극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 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많은 땀

을 흘릴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격동적인 말씀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신심 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한 영 민

# 화

오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 선 주체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전면적으로 계승되고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 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우리 혁명대 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이 백방 으로 강화되고 당의 령도따라 선군 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려는 천만 군민의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 이 천백배로 분출되고있다. 이것은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의 위 력으로 혁명을 전진시켜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데 혁명의 최 후승리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

진합니다. 》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고정불 변하지 않으며 력사는 전진하고 현 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시대 적환경이 달라지고 혁명이 끊임없이 전진할수록 혁명적당이 한순간도 놓 치지 말아야 할것은 사상사업선행, 사상사업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는것 이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 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 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

상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우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어 왔다. 1970년대에 당의 조직사상 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회주 의대건설전투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될수 있은것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 을 힘있게 벌려왔기때문이다. 사상사

업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 당 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 군대 와 인민이 세계적인 정치풍파속에서 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 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고 제 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정치군사적 대결전에서 런전런승할수 있은것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위업의 정당성을 깊 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드세 차게 벌려온것과 뗴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 은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 갈 때 우리의 정치사상진지가 철옹 성같이 다져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보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 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 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 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

시였다.

다 큰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사 상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주 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 저히 세우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령도체계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우 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른 승 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사상사업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

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의 첫 공정으로 된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으로 일관되여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참 된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 나게 실현해나가도록 하자면 그들속 에 당과 수령의 위대성,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 다.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 직 수령의 사상만을 절대적으로 따 르며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는 바로 사상단련의 용광로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사상사업을 강화해나갈 때 천 만군민이 생각을 해도, 걸음을 걸어 도 오직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뜻대 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백 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 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 게 싸워나가고있다.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 기 위한 당사상사업에 화력을 총집중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주체혁 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맞게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당 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일심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

의 필승불패성을 높이 펼쳐야 한다. 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백두에 서 개척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대 를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의 전진과 함께 세대가 교체 될수록 순간의 침체와 답보가 있어 서는 안되는것이 사상사업이다. 사회 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수 십년동안 휘날려온 혁명의 붉은기가 내리워지게 된것은 바로 새 세대들 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상 사업을 잘하지 않은 결과 혁명의 대 를 이을 후비대가 튼튼히 준비되지 못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 명 오늘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새로운 주체 1 0 0년대에 들어섰다.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 고있다. 세대는 바뀌여도 혁명은 멈 출수 없으며 투쟁은 계속되여야 한 다. 새 세대들에게 우리 혁명의 전취 물마다에 혁명선렬들과 부모들이 흘 린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는것 을 톡톡히 알려주기 위한 사상사업 을 잘하지 않으면 오늘의 행복에 도 취되여 혁명하기를 싫어하게 되고 나 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말려들수 있다. 새 세대 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 화시켜야 그들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신념, 주체의 붉은 피만이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누구나 부닥치는 시련 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오직 최후승 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게 할

수 있다. 사상정신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으 며 저절로 후대들에게 이어지는것이 아니다.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자 면 후대들이 혁명의 전세대가 지녔 던 견결한 투쟁정신을 굳건히 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끊 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 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의 력사가 새 겨주는 고귀한 철리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혁명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악랄 하게 벌리고있다. 그러나 혁명의 계 주봉을 억세계 틀어쥐고나가는 사상 적근위병,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 에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은 백 승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 없이 충직한 새 세대들이 있는 한 우 리 혁명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와도 끄떡없다.

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강성국 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의 정 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절

실한 요구이다. 사상사업의 목적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자는데 있다. 아무리 원대 한 리상과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하 더라도 대중이 발동되지 않으면 그 것은 사상루각으로 되고만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다. 인민대중의 견인불발의 정신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사 업을 강화하면 할수록 사회주의건 설에서 앙양이 일어나게 되며 사회 주의가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리적 으로 전진하게 된다. 지나온 사회주 의건설력사는 인민대중이 사상의지 적으로 발동되지 못하면 아무리 강 력한 물질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어

도 침체와 답보를 면할수 없으며 대 중의 불굴의 정신력이 발양되면 불 가능도 가능으로 전환되고 세기적 인 기적과 위훈이 창조될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인민대 중의 심장에 간직된 백절불굴의 투 쟁정신, 열렬한 애국심에 의하여 타 오르는것이 부강조국건설에서의 비 약의 불길이다.

당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번영기 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천만군민의 정신력에 의하여 힘있게 추동되는 사상의 총진군이다.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 가건설을 위한 투쟁이 곧 우리의 아 름다운 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 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 쳐가고있다. 우리는 사상사업을 강화 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분 출시켜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 도를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 놓아야 한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에 맞게 사상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릴 때 뚫지 못할 난관,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사상 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 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

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 체의 사상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 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

사를 끌없이 빛내여나갈것이다. 김 성

## 중 앙 보 고 국 제 부 녀 돐 기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 신】3.8국제부녀절 104돐기념 중 앙보고회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 자!》,《강성국가건설에서 조선 녀성의 영웅적기개를 펼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

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녀성일 군들과 녀맹원들, 녀성로력혁신자들 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 외동포녀성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 기구대표부 녀성들, 외국손님들이 보 고회에 초대되였다.

보고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기념보고를 김정순 조선민주녀성 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 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

에 3.8국제부녀절 104<del>돐을</del>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국제부녀절이 제정된 때로부터 오 늘에 이르는 100여년간은 전세계 진 보적녀성들의 국제적단결과 현대성 이 강화되고 세계녀성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력사적인 로

정이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 에 조선녀성운동이 승리와 영광의 한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 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 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 놓으시고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이룩하는것을 녀성문제해결의 중요한 력사적과제로 내세우시고 새형의 혁 명적녀성대중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밑 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반일부녀회를 결성 하신것은 조선녀성운동에서 력사적 사변으로 되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범 한 녀성대중을 망라하는 조선민주녀 성동맹을 무어주시고 남녀평등권법 령을 몸소 작성발포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높 이 받드시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시 여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시였으며 녀성 해방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였다.

언제나 녀성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녀성문제 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녀성 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교수하고 빛내이시며 우 리 나라 녀성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 계에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 는 력량이다》, 《강성대국건설대 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 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 자》등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녀성운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였다.

우리 녀성들을 견결한 수령결사 옹위투사로,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적 극 이바지하는 녀성혁명가들로 억세 게 키워주시였다.

조국보위초소에 선 녀성군인들과 군인가족녀성들, 혁명적군인가정들을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정신 세계와 투쟁기풍을 본받도록 하시였 으며 녀성들의 애국적소행을 귀중히 여기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녀맹일 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녀성동맹이 선군시대의 힘있는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되여온 조선녀성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새로 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영생위업 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심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 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녀성운동을 빛나는 승리 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 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 구에 맞게 녀성동맹사업과 녀성운동

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어머 니날을 제정하도록 해주시였으며 전선 시찰의 길에서 녀성군인들과 군판안해 들에게 육취의 정을 베푸시고 평양시 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어린 이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 녀성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위대한 령도자로,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참된 삶을 누려가 는 우리 녀성들처럼 행복하고 긍지 높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 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녀성운동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 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우리 녀성 들과 후대들의 삶의 태양이시고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

보고자는 모든 녀성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의 조 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 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이 땅우에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 한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 김없이 떨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 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 차게 일으켜나가자!》 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 제 모든 부문의 녀성들은 올해 알곡고 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자기 단위들에 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녀성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 보 건, 문학예술, 체육부문의 녀성들은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조국의 부강번

영에 이바지하며 사회주의문화건설 에서 큰걸음을 내짚도록 하는데 적

극 기여하여야 한다. 녀맹원들은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 과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 게 벌려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구

상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가화만사성》의 진리 를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과 정을 다 바치며 자식들을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워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거리 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꾸리며 당의 선군정치 를 받들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 고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떨치도 록 하는데 한몫하여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 시대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을 강화 하고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전투적기능 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 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대 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 한 사상전,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세 차게 일으켜야 한다.

녀성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당의 의 도에 맞게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교나가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 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녀성들은 외 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 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북남공동선언 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다.

보고자는 모든 녀성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 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세계자주 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 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 0 천

##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분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로력영웅 김명연동무

강성국가건설구 상을 농업생산성 과로 받들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 녀 성 들 중 에 는

당의 사회주의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로력 영웅으로 자라난 사동구역 장 천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 장 김명연동무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 이 다 영웅이 될것을 요구 하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수 있 습니다. » 김명연동무가 이 농장에서

농사일을 시작한것은 지금으 로부터 50여년전부터이다. 그는 농산기수, 작업반장을 거쳐 관리위원장으로 일해오 는 과정에 위대한 대원수님들

을 수십차례 만나뵈옵는 영광

双

0

을 지니였다. 김명연동무가 어버이수령님 을 처음으로 만나뵈온것은 주체 5 3 (1 9 6 4 )년 1월이 였다.이날 농산기수로 일 하고있던 그를 만나주신 수령님께서는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고 청년들이 사회주 의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 (당시)에 감사를 준다고 하시 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면서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도록 크나큰 믿음과 가르쳐주시였다.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의 귀중한 그는 언제나 영광의 그 나날에 다진 맹세를 가슴깊이 가르치심을 받은 그는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일하였다. 새벽 간직하고 남새생산을 늘이기 에 별을 이고 들끓는 전투장 으로 나가 해종일 거름을 생

산하다가 저녁에는 달을 이고 합숙으로 들어오면 온몸이 땅 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택건설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날과 달이 흘러 해가 길을 떠나군 하였다. 바뀌는 속에 남새농사에서 새

로운 전환이 일어났고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신임으로 작업반장을 거쳐 한 개 농장의 농사를 책임진 녀 성관리위원장으로 자라났다. 을 이끌었다.

주체 6 3 (1 9 7 4 ) 년 1월 전국농업대회에 몸소 참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명연동무를 연단에 내세워 주시고 자신께서 그의 토론을 록 이끌어주시였다. 대신하겠다고 하시며 이 동무

의 남새농사경험을 책에다 적 으면 남새박사론문이 된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리고 자신 의 이름으로 장천협동농장 찾아가시겠다고 관리위원장과 다. 온실안의 온도가 10℃이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이른아침이면 분수식밭관수 면적을 늘이기 위해 포전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농촌문화주

남새포전의 지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문제가 제기되였 을 때에도 그는 양어장의 흙 을 파내여 실어낼것을 발기하 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천 협동농장(당시)의 농장원들이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은덕 을 잊지 말고 농사를 잘 짓도

주체 8 3 (1 9 9 4 )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9월에 장천협동농장에 꼭

약속을 하시였는데 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장천농민들이 얼마나 울고있 겠는가고 하시며 나를 대신하 여 동무들이 나가 고무해주라 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사 실을 알게 된 농장일군들과 농 장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혀며려드이 기치리 바쁘신 속에서도 장천남새전 문협동농장에 이미 있던 남새 온실을 개건하도록 하여주신 데 이어 또다시 온실을 건설 하도록 하시여 수십정보의 온 실바다가 펼쳐지게 하여주시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그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결의를 안고 장천사람 들모두가 펼쳐나섰다. 지난해 2월 수도시민들에게 신선한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보내주 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던 어 느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며 눈보라가 일기 시작할 때였

하로 떨어지면 배추 정보당 수 확고가 낮아진다 는것은 누구나 알고있었지만 그

누구도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 었다. 바로 이러한 때 김명연 동무가 남먼저 이불과 모포를 들고 온실로 달려나갔다. 그러 자 일군들과 농장원들, 학생들 지어 로인들까지 떨쳐나섰다.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온실지붕에는 나래와 비닐박 막은 물론 모포와 이불들이 씌워지고 온실안에는 뜨거운 물을 담은 비닐통들과 바께 쯔, 불돌들이 생겨났으며 호동 마다에 불이 지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마련된 신선 한 남새를 수도시민들에게 보 내줄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며 떨쳐나선 그들의 불 굴의 의지앞에서 기승을 부리 던 눈보라도 수그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도 김명연동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녀성 관리위원장으로 일해온 나날 들을 돌이켜보며 남새생산성과 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 결의에 넘쳐 보 답의 한길을 달려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길

## 예와 따뜻한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연구사 공훈과학자 리소희동무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우리 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

01**CF.** » 얼마전에 우리는 의학과학 원 종양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공훈과학자이며 박사, 부교수인 리소희동무를 만났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종양의 세포학적진 단방법을 개척하고 암의 조 기진단체계를 확립하는데 이 바지하였으며 70나이를 넘 긴 오늘에도 청춘의 기백을

근 50년세월 순탄치 않은 과학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 오는 녀성과학자의 열정은 과 연 어디서 샘솟는것인가.

를 가하고있다.

안고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

우리의 물음에 리소희동무 는 흘러간 세월을 뜨겁게 추 억하였다.

어렸을 때 뜻밖의 병으로 아버지를 일찍 잃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꿈은 의사가 되는것이였다. 중학교를 졸업 할무렵 그는 교원이 될것을 바라는 가족, 친척들의 권교에 도 불구하고 의학대학을 지망 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후 당 의 은정속에 그는 평양의학대 학(당시) 학생이 되였다.

위 대 한 령 도 자 소연구사로 배치받게 되였다. 세계적으로 불치의 병이라 고 일러오는 질병이였지만 리 소희동무는 새로운 결심을 안

고 암에 대한 연구사업에 달 라붙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리용 하고있던 암진단방법은 조직

학적진단법이였는데 이것은 며칠을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암진단을 내리는 데서 많은 애로를 겪고있다 는것을 알게 된 리소희동무 는 선진과학기술도서들을 탐 독하고 실험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몇분사이에 암진단을 할수 있는 세포학적인 진단 법을 개척하게 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전국의 병원 들에 암의 조기진단체계를 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 라붙었다. 헐치 않았다. 실패 의 눈물도 많이 흘렸다. 하지

만 순간도 멈춰설수 없는 과 학탐구의 길이였다. 아무리 멀 고 험해도 이 길을 끝까지 헤 쳐나가야 우리 인민의 건강증 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릴수 있다는 일념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런 그의 마음을 당에서는

귀중히 여겨주고 적극 내세워 주었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 음과 은정속에 종양림상연구 와 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 룩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한 그는 의학과학원 종양연구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받았

으며 높은 국가수훈과 공훈과 학자의 영예도 지니였다. 그는 수많은 암세포표본들 을 만들어 치료사업에 도입하

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 0 0 돐을 맞으면서 종양세 포진단기술과 관련한 도서를 집필하여 내놓았다. 도서는 각 도의 의료일군들에게 배포되 였으며 환자치료에 매우 절실 한 도움을 주었다.

리소희동무가 지난 기간 지 칠줄 모르는 정열을 안고 림 상실천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 과제들을 해결한것만 해도 수 십건이나 되며 이 나날 많은 과학기술성과등록증도 받았 다. 지난해에 열린 전국과학 자,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던 영광의 그 시각을 되새겨보며 그는 우리 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삶의 걸음걸음 이끌어주 고 보살펴준 어머니당의 품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공훈과 학자로, 박사, 부교수로까지 될수 있었겠습니까.》

정녕 이름없던 한 평범한 처녀의 꿈을 꽃피워주고 암진 단박사로까지 값높이 내세워 준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이 야말로 리소희동무가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한생의 끝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의 길. 과학탐구의 길로 곧바로 나갈수 있게 하는 보람찬 삶 의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옥별

# 凹

## 곽 산 군 편 의 봉 사 관 리 소 지 배 인 리 금 숙 동 무 와 종 업 원 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

리금숙동무는 도인민회의 대의원이다.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 들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군 안의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역전에 꾸려진 려행자들을 위한 봉사망, 아담하고 산뜻한 정각을 비롯한 휴식터가 있는 공원, 맞은켠에 일떠선 다층살 릮집…

그것들도 리금숙동무가 종 업원들과 힘을 합쳐 일떠세운

읍거리에 들어서면 군에서 제일 환한 건물의 하나인 은덕원이 시원스레 안겨든다. 2층으로 되여있고 한증칸이 달 린 크고작은 목욕탕들과 리발 실, 미용실, 탁구장 등을 갖춘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이다. 사람들로 흥성거리고 웃음 꽃이 피여나는 은덕원의 곳곳 에서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시하면서 인민들이 좋 아하고 실지 덕을 볼수 있도 록 해나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 신을 뜨겁게 느낄수 있다.

은덕원 작업반장인 남정옥 동무는 우리에게 리금숙동무 가 지배인으로 온 다음 은덕 원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리금숙동무는 지배인사업을

종업원가정방문으로부터 시작

하였다. 당시 적지 않은 종업원 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있 지 못하고있었다. 출근률이 높 지 못하고 판리소의 작업환경 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 하고있었으며 봉사설비들도 불 충분하였다.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 고있었다. 리금숙동무는 관리 소전반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 고 종업원들을 인민에 대한 헌 신적인 복무의 길로 불러일으 키기 위한 방도를 대중의 정신 력을 발동하는데서 찾았다. 그 는 종업원 매 가정을 찾아 생 활형편도 알아보고 걸린 문제 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

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가 맡은 일을 제 대로 하지 못하여 군안의 주민 들에게 생활상불편을 주고있 다. 참된 봉사일군이라면 이것 을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 편의봉 사판리소를 인민들의 호평을 드는 보이라개조는 후에 하는 받는 봉사기지로 만들자.

웠다. 어느날 그는 전체 종업

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절절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일터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변시 키고 인민봉사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자는 리금숙

동무의 호소는 종업원들의 가

슴을 세차게 쳤다. \_ 인민봉사에서 혁신을 일으 키기 위한 첫 사업으로 은덕원 개건공사가 벌어졌다. 리금숙 동무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설비도 로력도 자력갱생의 혁 명정신으로 풀어나갈것을 결심 하였다. 종업원대부분이 녀성 들이였지만 한사람같이 펼쳐나 공사를 힘차게 내밀었다. 그리

은덕원을 일신시키였다. 은덕원개건공사에서 힘을 넣은것의 하나가 리발실, 미용 실을 비롯한 작업장들의 로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것이 였다. 특히 중요시한것은 겨울 철난방보장이였다.

하여 공사를 두달만에 끝내고

(추운 겨울에도 은덕원의 굣곳이 다 훈훈하면 손님들은 물론이고 종업원들도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목욕탕마다에 더운물을 보

내주는 한편 리발실, 미용실을 비롯한 작업장 곳곳에 난방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보이라를 개조해야 하였다. 일부 일군들 이 지금 벌려놓은 일이 적지 않은데 자재와 로력이 많이 게 어떤가고 하였다. 그때 리 일으키였다. 대중의 목소리에

금숙동무는 말하였다. 《겨울에 리발가위를 쥐고 일하고 미용봉사를 하면서 손 이 시려할 종업원들을 생각하 면 잠이 오지 않아요.리발 사, 미용사들을 제 혈육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전에는 작업장이 추워 빨 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는 아무 리 추운 날에도 일터가 훈훈하 여 일에서 성수가 나고 봉사성 도 더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종업원 누구나가 좋아한다. 무동력보이라에 의한 은덕원 의 난방체계는 종업원들을 아 끼고 사랑하는 리금숙동무의 그런 마음속에서 태여나게 되

였다. 낡은 보이라를 들어내고 새 보이라를 놓는 일은 헐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연료를 적게 쓰면서 도 열효률을 높일수 있는 무동 력보이라가 완성되었을 때 리 금숙동무는 더운물이 차넘치

고 곳곳마다에 온기가 흐르는

은덕원을 돌아보면서 기쁨으

로 눈굽을 적시였다. 그는 인민봉사사업에서 혁 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 도의 하나를 종업원들의 생활 을 잘 돌봐주는데서 찾고 종업 원들의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 제들을 앞장서 풀어나가면서 후방공급사업에서도 혁신을

귀를 기울이고 집단이 바라는 일이라면 발벗고나서는 그였 기에 종업원들을 위해 자기 집 재산도 아낌없이 들고나왔다. 리금숙동무는 그런 진정과

헌신으로 일터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가두에 머물러있던 일 부 미용사들과 어머니를 잃은 외로움을 안고있던 림선혁동 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을 따뜻 이 돌봐주어 혁신자가 되게 하 였으며 집단을 화목하고 단합 된 한가정으로 꾸려나갔다. 우리와 만난 리금숙동무는

《우리는 항상 인민들의 얼굴 을 쳐다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있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면 마음이 놓이고 그렇 지 않으면 죄스러워 잠이 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군안 의 인민들을 위해 올해에는 물 놀이장과 종합수리소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지배인, 우리 대의원이 라는 부름을 소중히 안고 그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 이 찾아할것이다. -인민의 충복으로 한생을 살리!

는 종업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이것이 리금숙동무만이 아 닌 곽산군편의봉사관리소 전체 종업원들의 변함없는 지향이고 결심이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길에서 자랑많은 집단 의 모습은 계속 빛날것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넘성근로자들 -선교편직공장에서-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 소문난 실 농 군 으 로 녀 성 분 조 장

개천시 룡진협동농장 제 짓도록 하였다. 5 **작업반** 1 분조장 최천애동 무는 실농군으로 소문난 녀성 분조장이다. 올해 모든 강냉이 포전들에 통풍이 잘되게 이랑 을 짓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든

사실을 보아도 그렇다. 탐구심이 많은 그는 지난해 바람방향을 보아가며 강냉이 본사기자 오은 별 포전에 통풍이 잘되게 이랑을 깊숙이 하고 김을 말끔히 매

이때 그는 이랑너비를 실정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도록

분조원들을 이끌었다. 그는 강냉이 정보당 수확고 를 높이자면 대용비료를 효과 있게 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후치질을 그전보다 더

나갔다. 그리고 분조원들에게 강냉이영양상태에 맞게 잎덧 에 맞게 정하고 강냉이 평당 비료를 기술적요구대로 주도 록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지난해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보다 높 이 세운 그는 여러가지 선진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 는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평양에 시집간 동창생이 오래간만에 왔다

동창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반겨 말했다.

농장일군으로 일하고 이 동무는 기사장이야.

쳐다보았다. 로춘선은 머밋거리다가 입을

《학생때 뽈 잘 차던 영삼동무는 여기서

한 동창생이 이러자 모두가 궁금한듯

동창생들은 《그래?!》 하며 놀라와

《아니,원래야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

로춘선이 선뜻 대답을 못한것은 그때문

이였다. 이전에 그는 유치원에서 일했다.

후엔 부양으로 있었다. 오래동안 가두생활

을 하던 그가 마흔살이 퍽 지난 나이에 돌

연 궤도전차 차장이 되였을 때 동네녀인들

역시 놀라와했지만 사람의 생활에서 일어

난 변화엔 그것이 크든작든지간에 동기가

다섯해전, 하루는 대학졸업을 앞둔 로춘

선의 아들이 배치사업때문이라면서 문건을

썼다. 맏이가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여

무등 기뻤던 로춘선은 그가 어머니직업란 에서 펜을 멈춘것을 보고 《왜 그러냐?

그저 부양이라고 쓰려무나. 》라고 심상하게

말했다. 아들은 대답이 없고 대신 오빠곁에

앉아 문건쓰는것을 들여다보고있던 외동딸

막내가 제 오빠에게 묻는것인지, 자기에

게 묻는것인지 알수 없었지만 아무튼 로춘

선은 속이 뜨끔해져 입을 다물고말았다.

더구나 맏이가 《그건 늙은이나 불구자, 장

기환자같은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

간다는 소리야.》하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

해졌다. 기실 그는 한창 일할 나이였고 환

자는 더우기 아닌것이였다. 그런데 여러해

째 남편의 부양을 받고있었다. 하지만 국가

의 혜택으로 자식들을 돈 한푼 들이지 않

인 막내가 고개를 들었다.

《부양이란 무슨 말이예요?》

있어 로춘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면서 중학시절동무들이 찾아왔다.

《처녀때 모색이 여전하구나.》

《집은 통일거리에 있다지?》

그래 넌 지금 무슨 일을 하니?》

《궤도전차 차장이란다.》

열었다.

았니?》

도 궤

고 공부시키고있었고 아들은 대학까지 졸 로춘선은 여러해만에 고향인 운전군을 업하게 된것이였다. 그는 량심의 가책에 부 찾았다. 이곳에 사는 둘째오빠네가 한번 다 대끼지 않을수 없었다. 아들이 문건에 쓴 녀가라고 했거니와 소<del>꿉동무들</del>도 보고싶었 던것이다. 고향땅은 연기도 달다더니 향토의 《부양》이라는 두 글자앞에 자신을 세워볼 모든것이 애틋하고 정다왔다. 저녁무렵엔 수록 집에 들어앉아 가정잡사에나 신경을

> 고난의 행군시기 가정을 돌본다고 하면서 유치원을 그만둔것도 몹시 후회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쓰며 살아온 지난날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고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불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

며칠후 로춘선은 집을 나섰다. 다시 직장 에 나가겠다니 정말 생각 잘했소,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새 출발하오, 그새 나라에 진 빚을 갚기도 할겸 녀성로력이 많이 필요하 고 일손이 바른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게 좋 을것 같소라고 하던 남편이나 어머니직업 란에 이제부턴 부양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 겠다고 기뻐하던 아들을 생각하니 걸음에 못내 힘이 갔다. 그런데 남편이 한번 가보 라고 권고한 도시미화사업소에 들리니 지 배인이 반가와는 하면서도 딱해하였다.

《고맙소만 우린 로력이 다 찼구만. 이거 정말 미안하오.》

그 말이 다른 녀성들처럼 살지 못한 자 기에게 드는 매같아 로춘선은 달아오른 얼 굴로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다. 길거리에 망 연히 서서 보니 건너편엔 공장이 있고 옆 에는 탁아소가 있었지만 또 거절당할것만 같아 찾아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집에 돌아가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고 직장 을 정하리라 마음먹고 근방에 있는 서평양 —락랑궤도전차정류소로 갔다. 정류소에는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불만스러 운 표정들이였다. 한동안이 지나 궤도전차 가 도착하자 손님들은 차에 오르면서 한마 디씩 하였다.

《요즘엔 왜 궤도전차가 잘 안 다니는지 모를 일이구만.》

《거야 봉사성에 문제가 있어 그러지요.》 《옳습니다.》

듣다못해서인지 운전사가 좌석에서 벌떡 일어섰다.

《손님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들 계시라구요. 차장이 부족해 그러는겁니다.》 운전사는 부아가 난듯 윙ㅡ 차를 몰았

다.그 서슬에 차창결에 서있던 로춘선은

비칠거리였다.

(차장이 모자라다니?!…)

그는 다음정류소에서 서둘러 차를 내렸 다. 그리고 한달음에 락랑궤도전차사업소 로 갔다. 사업소일군은 난데없이 나타난 그 를 한동안 쳐다보다가 정말 차장을 하겠는 가 곱씹어 물었다.

《차장로력이 긴장한것은 사실인데 잘 생 각해보오. 나이도 적지 않은데… 우린 한번 받으면 잘 놓아주지 않소.한두번 차를 타 보고 그만둘 생각이면 아예 단념하고.》

하지만 로춘선은 결심이 확고했다. 다시 는 나라의 짐이 되는 사람, 제 가정의 리익 만 추구하는 녀성,공짜밥을 먹는 인간이 되지 않으리라 속다짐했던것이다. 그런데 첫 출근날 딸이 슬그머니 아빠트마당까지 따라나오더니 팔을 끄당겼다.

《엄마, 정말 차장을 하려나?》 로춘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자 딸이 《다른 직업도 많은데 하필이 면 그 나이에 궤도전차 차장을,우리 학급 엔 어머니가 차장을 하는 애가 없어.》이

러며 등을 돌려댔다. 로춘선은 그만 생각이 착잡해져 잠시 섰다가 마음을 다잡을겸 말 하였다.

《차장이 어째서. 우리 나라엔 직업의 귀 천이 없다. 너도 그 영화 봤지. <한 당일군 에 대한 이야기〉. 군당책임비서의 안해가 수매원으로 일하지 않던.》

그러나 딸은 《거야 간부의 안해이니까 그 랬지.》하며 얼굴을 돌릴줄 몰랐다.아침 5시에 집을 떠나야 첫 운행을 보장할수 있 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서 둘러 사업소에 나가 궤도전차에 올랐지만 딸의 일로 하여 로춘선은 마음이 개운치 않 았다. 거리는 아직 고요했다. 첫 정류소쪽 을 보니 밤교대를 마치고 퇴근하는 동평양 화력발전소 로동자인듯 한 손님들이 몇명 있을뿐이였다. 그들을 보자 딸이 한 말이 되살아났다.

(뭐? 로동자의 안해이기때문에 차장을 하느냐고? 덜돼먹기란 원…)

(아니, 다 내 잘못이지, 애들앞에 본보기 로 살지 못한탓이야!)

이런 생각을 엇바꾸느라니 회오의 눈물 이 솟구쳤다. 그러다나니 자기에게 고정배 차된 궤도전차 3038호가 거리를 향해 사업소를 출발하는것도 모르고 앉아있었 다. 그때였다. 운전사가 사령실앞에 차를 《로아주머니,매일 아침 여기선 잠간

의

내렸다 올라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로춘선이 엉거주춤 일어서는데 차창밖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 렸다.

차

《3038호, 빨리 빵과 콩우유를 받아가 라요!》

빵이라니? 콩우유는 또 웬것인가?!… 그는 묻는 얼굴로 운전사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운전사는 빙긋 웃을뿐이였다. 그날 로춘선은 운전사 배학철이 하는 이야기를 새겨들으며 따끈한 빵과 콩우유를 눈물속에 들었다.

(나라에서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뻐스운 전사, 차장들에게 빵과 콩우유를 공급하다 니!손님들을 나르고 차표를 받는게 무슨 힘든 일이라고…)

그는 지금껏 무심히 스치였던 많은 사람 들을 여겨보기 시작하였다. 명절날, 일요일 가림없이 운행길을 달리는 뻐스, 무궤도전 차, 궤도전차의 운전사와 차장들, 아침저녁 으로 길을 쓰는 도로관리원들과 하수도를 정비하는 오수준첩공들, 공공위생시설관리 공들… 그들모두가 돋보이였다. 소문없이 사회를 초석처럼 받들고 인민들의 생활에 자신을 고이는 사람들속에 자기도 서있다는 긍지도 컸다. 하기에 딸이 어머니가 차장을 하는것이 남보기에 창피하다고 하면서 거리에서 궤도전차 3038호를 만나면 피한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그를 앞에 꿇 어앉히였다.

《너 지금 누굴 모욕하고있는지 아니? 이 어머니 하나가 아니라 인민들을 위해 새 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써 일하는 수많은 사 람들을 모욕하고있다. 그게 얼마나 죄되는 일인지 아니?》

몇달후 설명절날 막차를 운행하고 밤늦 어 퇴근해오니 딸이 아빠트마당에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로춘선은 《늦어 미안하구 나.》하고 어느새 입버릇처럼 된 이 말을 하며 안고 온 꽃송이들을 내밀었다.

《손님들이 주더구나. 명절날에 수고한다 면서.》

딸은 말없이 꽃송이들을 매만지였다. 그날 막내는 어머니를 꼭 그러안고 잤다. 다음날 로춘선은 차에 손님들을 태우다가 누군가 자기 손에 차표를 쥐여주며 다정히 건드리는것을 느꼈다. 얼굴을 돌리니 딸이 웃으며 쳐다보고있었다. 로춘선은 그를 껴 안아주었다.

《제 딸이예요.》

그가 손님들에게 이러자 딸이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닌 차장 입니다.》

손님들은 껄껄 웃으며 뜻있게 눈인사를 보냈다.

이젠 구면지기가 된 그들을 로춘선은 우 리 차 고정손님이라고 부르군 하였다. 그렇 게 궤도전차 3038호를 늘 타고 다니는 사람들속에는 영웅도 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있으며 로력혁신자도 많았다. 대 학, 연구소의 박사들도 있고 공장, 기업소 의 지배인, 당비서들도 있었다.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이 차에 오르면 앉을 자리를 마 련해주고 애기어머니가 타면 차장자리를 내주는 로춘선을 손님들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하였다.

궤도전차 3038호에서는 늘 노래소리 가 울리였다. 선창은 로춘선이 뗴고 손님들 이 합창으로 받군 하였다. 새 노래가 나오 면 남먼저 배워 손풍금을 타며 보급하는 로 춘선을 손님들은 우리 선동원이라고 부르 기도 했다. 그가 해설하는 사회공공질서와 법규범들, 그가 랑독하는 혁명소설, 그가 읊는 시들을 듣느라 내려야 할 정류소를 지 나치는 손님도 있었고 그가 부르는 노래를 더 듣고싶어 우정 종점까지 가는 손님도 있 었다. 보통강구역 봉화동 9인민반에서 살 고있는 김성환전쟁로병은 신문에 새 노래 가 실리면 그것을 로춘선에게 가져다주군 하였다. 로춘선이 고마와하였더니 로병은 머리를 저었다.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당정 책선전에 노력하는 차장동물 돕고싶어 그 러오. 내 언제인가 동무가 구겨진 차표를 낸 손님에게 하는 말을 듣고 무척 감동 되였댔소. 그때 이랬지. 어제나 오늘이나 나라에서는 인민들을 위해 차표값을 눅게 정하고있다. 차표는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베푸는 혜택의 증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건사하면 되겠는가.》

그가 로춘선과 인연을 맺은것은 네해전 겨울이다. 그때 궤도전차 3038호에 오른 그는 좌석에 앉자 그만 깜빡 졸았다. 이상하게 무릎도리가 따스해 눈을 떠보니 털세타가 씌워져있었다. 곁에 앉은 청년이 차장아주머니가 자기 세타를 벗어 씌워드 렸다고 귀띔하였다. 딸이나 며느리이면 이 보다 더하랴 하고 그가 눈을 슴벅이며 세 타를 거두어드는데 로춘선이 다가와 말하

였다.

《아버님, 그냥 덮고계십시오. 감기라도 들면 어쩌나 해서 그랬습니다.》

그후부터 로병은 궤도전차를 탈 일이 있으면 우정 3038호를 기다려 타군 했다. 살틀한 차장을 한번 더 보고싶었고 그가 부르는 노래도 다시 듣고싶어서였다.

로춘선은 운전사와 인차 친동기간처럼 되였다. 항상 그를 도와 차정비도 하고 차안도 알뜰히 거두었다. 배학철은 집에서 만든 별식을 운전대결에 놓아주기도 하고 새 옷도 안겨주며 운행길을 한마음이 되여 달 리는 로춘선을 로아주머니라고 부르던 대 신 우리 누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그가 느 닷없이 말했다.

《누이,좀 힘이 든다 해도 다른데 가지 마오. 나와 함께 이 3038호에서 늙읍 시다.》

로춘선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별말을 다. 내가 가긴 어디로 가겠어요. 난 3038호를 못 떠나요. 이젠 손님들을 떠나 못살겠어.》

배학철에게서 그 말을 듣고 사업소 초급 당비서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제 맡은 일에 진짜로 량심을 바치는 사 람의 직업애란 바로 그런것이고 생활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법이지.》

로춘선의 추억담에 동창생들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훌륭하구나. 일을 더 잘해줘. 그렇 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이 얼마나 좋니!》

로춘선은 눈물이 글썽해 늘 생각하고있 던것을 말하였다.

《그래, 난 정말 행복해.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구나. 사실은 다시 찾은 행복이지. 난 속으로 손님들과 약속했다. 년로보장받을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겠 다고. 》

다음날 이른아침 평양역에 도착한 로춘선

은 곧장 사업소로 갔다. 언제 봐도 정다운 궤도전차 3038호가 기다리고있었다. (조국에 바치고 사회와 집단, 인민을 위 하는 로동은 얼마나 보람찬가. 인생의 가치

도 행복도 거기에 있는것이다.) 궤도전차는 거리를 달리였다. 인민들의

웃음을 싣고, 생활의 진리도 싣고. 본사기자 박

#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과 믿음 깊이 간직하고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통 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 밝아왔다. 라 곳곳의 선거장으로 환희에 넘쳐 들어서는 우리 로동계급 의 얼굴마다에 무한한 긍지와 기쁨이 넘쳐흐른다.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 석같이 다지는 최고인민회의 .. ○대의원선거에서 찬성의 한표를 바칠 충정과 애국의 열정이 그 누구의 가슴속에서나 용암 마냥 끓어넘치고있다.

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최고인 민회의 대의원선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처음 으로 진행되는 오늘의 선거는 우리 로동계급모두에게 대대 로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한평생 우리 로동계급을 위 하여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고 로동계급 으로 터져올랐다. 이 일하는 일터를 찾고찾으시 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령 도 자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과

잊을수 있으라.

건설장마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던 주체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13 의 로동계급은 크나큰 환희에 넘쳐있었다.

천리마를 타고 혁신의 앞

장에서 내달리던 제련소의 로동자를 자기들의 손으로 인민의 최고주권기관 대표로 선거하게 된것만도 커다란 자랑이였다. 그런데 그처럼 뵙고싶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들의 선거구에 몸소 나 오시였으니 그 영예와 긍지 는 그대로 폭풍같은 환호성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경축일색으로 단장된 온 나 원후보자에게 찬성의 한표를 과 믿음의 력사를 우리 어찌

온 나라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 곳장과 4 6 (1 9 5 7 )년 8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 남포제련소(당시)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부대인 로동계급의 핵심들을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고 선 거의 날에는 로동계급을 찾으 시여 그들과 함께 로동자대의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

위대한 수령님, 평범한 로동 자대의원후보자를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그날에 바치 신 찬성의 한표는 그대로 천리마를 타고 소극성과 보수 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대담 하게 불사르며 기적과 위훈 창조에로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 로동계급모두에 대한 이였다.

우리 로동계급을 부강조국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주체 5 1 (1 9 6 2)년과 주체 5 6 (1 9 6 7)년, 주체 66(1977)년의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에도 로 동계급과 함께 계시며 로동계 급출신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투표하시였다.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후보 자로 선출된 그들은 나라없던 지난날 천대와 멸시를 숙명으 로 받아들이며 고역에 시달려 야 했던 방직공과 탄부, 전력 생산자들이였다.

위대한 어버이를 선거장에 모시고 자기들과 같은 일터. 같은 초소에서 일하는 혁신자 들에게 찬성의 한표한표를 바친 그 나날의 방직공들과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 탄부들, 전력생산자들의 격정 시고 선거장에 들어서신 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로동 계급에게도 가슴뜨겁게 간직된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주체 7 9 (1 9 9 0) 년 4 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 6 8 0 호선거구 제 5 호 분구선거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대의 후보자인 련합기업소 분피 압연직장 직장장에게 투표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그날의 사랑과 믿음은 20여년이 지 난 오늘에도 이곳 일군들과

간직되여있다. 지나온 최고인민회의 대의 원선거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온 나라의 로동계급은 내 나 라, 내 조국땅에 인민의 락원, 로동계급의 세상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하없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오늘 우리 로동계급의 행복과 긍지 는 하늘땅에 넘치고있다.

로동계급을 찾아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꽃퍼나는 가지가지의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에 온 나라 로동계급이 격정을 터치며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을 노래하고있다.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종합적 인 문화후생시설인 강성원을 최 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워 자랑찬 증산성과로 어버이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린 로동계급에게 통 채로 안겨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방직공장을 찾으시여 방직공 로동계급을 위한 합숙을 최상 의 수준에서 최단기간내에 일 떠세울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 주신데 이어 올해의 1월초와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곳 장로동계급에게 사랑의 선물

을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 우리 로동계급에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드는 길에 우리 로동계 급의 창창한 미래가 있고 경제 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령도자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 지기 위하여 보무당당히 선거 장들로 들어서는 온 나라 로동 계급의 충정의 맹세이다.

본사기자 리병춘

지난해 10월 김정숙평양

믿음인것이다.

평범한 인민들이 정권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만



#### 한표, 애국의 ┈∗ 총정의 한표를 \* \*\*\*\*\*\*\*\*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일 드높은

열의로 마음을 끓이며 충정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칠 일념 이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 속에 차넘치는 가운데 여기 인민의 나라, 우리 장군님께서

모른다.

나라, 내 조국이 세상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명부앞에서 사람들이 떠날줄 권, 인민의 조국이 목숨처럼 다지리라. 귀중하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

뜻깊은 이번 선거에서 고마운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따르면 승리가 오고 행복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고마운 온다는 철리가 그들모두의 가 슴마다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우리모두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는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받들 위한 제 1 7호구 제 1 5 3호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지켜 충정과 애국의 마음을 선거표 분구선거위원회의 서거자 주고 빛내여주신 인민의 주 에 담아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 값 높 은

동 봉 협 동 농 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몇해전 동봉땅을 찾으시였던

나라없던 지난날같으면 길 가의 막돌처럼 버림받았을 자 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엿한 주인, 온 나라가 다 아는 본보기농장의 주인들로 되였 으니 정녕 이보다 더 큰 영예,

온 세상에 자랑떨치고있는 독을 가득 채우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로 가슴끓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를 받아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이들은 기세충천하여 농사차 비를 앞당기면서 지난 1월말

성과에 만족할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농장을 찾으시였던 몇해전 의 그날 청년들이 사회주의농촌 진지를 다지는데서 앞장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이들은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 하며 짧은 기간에 1 500t의

가운데 농사차비성과가 계속 확대되였다. 일군들과 농장원 들은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 면서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쳐 강냉이영양단지찍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끝내고 그 것이 마르지 않도록 대책까지

세워놓았다. 평범한 농민들인 자기들의

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많은 본보기농장사람들이 이만한 도시거름을 실어들인 제4작 업반원들, 전국농업부문분조 장대회에 참가하여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 하고 이른새벽 남먼저 포전에 거름을 실어내군 한 이 작업

반의 3분조장… 이들만이 아닌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알곡증 산으로 우리의 인민주권을 튼 튼히 다지자면 농사를 더욱 과 학적으로 지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준비사업에 한사 람같이 떨쳐나섰다.

콤퓨터에 의한 농업과학기술 지식보급과 영농작업의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 도 적극 추진되게 되였다.

뜻깊은 오늘 일군들과 농장 원들은 인민주권의 주인이 되 여 그것을 반석같이 다져가는 값높은 삶의 권리를 지닌 긍지 와 보람을 애국충정으로 끌없 이 빛내여가려는 불타는 열의 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오를 안고 긴장한 치료전투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깊은 편지들도 있었다.

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 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라나고있습니다. » 지난해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는 3 0대 중엽나이의 환자가 실려들어 왔다. 어느 한 단위에서 로동

는 대단히 치명적이였다. 온 가족이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그의 병을 두고 걱정만 하 고있던 그때 과장 홍규풍, 부과 장 채병철동무를 비롯한 의료집 단은 환자를 기어이 살려낼 각

각지 독자들이 보내여온 편지를 읽고

날을 따라 호전되여가던 지난 설명절날 저녁이였다.

수십일동안이나 하루와 같이 바쳐온 지극한 정성만으로도 부족한듯 자기의 입맛까지 헤아

벌리였다. 그 나날 여러차례의 니다. 지금 저와 온 가족의 가 간 환자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

락랑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주민은 평양안과병원 소아안과 한 녀성이 음식꾸레미를 들 의료일군들에 의하여 자기의 회복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 런 가슴뜨거운 사연을 적은

> 환자가 난치성질환으로 생 활상불편을 겪게 된것은 2년 전부터였다. 어린 나이에 벌써 시력이 떨어져 안경을 낄수밖 에 없는 환자의 모습을 대하 는 순간 담당의사 홍일옥동무 를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은 생각이 많았다. 그때부터 이들 은 중환자가 수시로 제기되는 바쁜 속에서도 어린이의 광명 을 위해 탐구의 낮과 밤을 보

냈다.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나 환희로운가.

안고 힘찬 전투 를 벌려 짦은 기간에 해결방 도를 찾아낸 이 들은 지난 2년

분으로 글공부를 할수 있게 되 였다고 하면서 그 주민은 고마 운 내 조국을 더욱 억세게 받들 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어찌 이들뿐이라. 만사람의 축복속에 평양산 원에서 세쌍둥이를 낳은 량강 도의 녀성과 의학과학원 종양 연구소에서 값비싼 암왁찐을

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이 클 수록 혁명주권을 끝없이 빛내

여갈 열의를 더욱 굳게 가다 듬고있는 우리 인민,

# 저 Ы OI <u></u> O

썩하게 끓어번진다. 명절분위 기에 휩싸인 농장마을 곳곳에 서 북소리 높이 울리는 속에 일군들과 농장원모두가 펼쳐 나 마당들이 좁다하게 흥겨운 춤판을 펼친다. 흥분된 심정으로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는 ◎ 이들의 가슴마다에 자신들의 손으로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져가는 기쁨과 보람, 이 세

> 넘쳐난다. 위 대 하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상 가장 값높은 삶의 권리를

지닌 긍지와 행복감이 가득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을 구현한것이며 우리 당의 령도빌에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건설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

내 조국 어디에나 봄기운이 따뜻이 흐르고 사람들의 기쁨이 한껏 무르녹는 오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눈굽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그날 농장벌에 땀과 진심을 묻어가고있는 혁신자들의 소행 에 대한 보고도 받아주시고 관리위원장이 어버이수령님 으로부터 농사일을 배운 오랜 일군답게 앞으로도 앓지 말고 일을 더 잘하라고 고무격려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은혜로운 사랑속에 나라의 어 행복한 삶이 또 어데 있으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누 리는 삶이 귀중할수록 나라쌀 여온 이들이다.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이 들 대한 더욱 절절한 그리움으로 까지 논밭 정보당 수십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 거름을 실어내는 혁신을 창조 한다는 기쁨과 긍지를 안고 하였다.

>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불을 토하듯 이렇게 웨치며 더욱 분발해나섰다. 청년들이 앞장 에 섰다.

> 니탄을 캐내였다. 농장벌이 젊음으로 약동하는

손으로 나라정사를 토의하는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소중히

그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근 본사 편집국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제 1 3기 대의

원선거에 참가 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 같이 다질 불같은 결의들을 담은 각계층 근로자들의 편지 들이 적지 않게 왔다. 그중에 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 도의 혜택을 받으며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사람들의 감동

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

자로 일하고있는 그의 병상태

과적인 협의회가 열리였으며 환 자의 몸으로는 값비싼 약물들이 련속 흘러들었다. 의료일군들의 적극적인 노

고 환자의 방에 들어섰다. 그 아들이 이제는 시력을 원만히 는 부과장의 안해였다.

려가며 깊이 마음을 쓰는 담당 의료일군이 너무 고마와 환자는 그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지난 2월 중순 보다 건강한 몸으로 퇴 원한 그는 자본주의나라같으 면 세상을 이미 떠났을 자기 가 꿈과 같이 대지를 활보하 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정을 토로하였다.

《정녕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도 수도의 중앙병원에서 무상 치료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 도록 하여준 우리의 인민적보 건제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입

슴속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제일먼저 참가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제는 자기의 아들이 명랑한 기 를 반석같이 다져나갈 불같은 력에 의해 환자의 병상태가 열의로 충만되여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왔다.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자각을

부었다. 그렇게 바쳐온 의료일 군들의 친혈육의 정이 있어 이

무상으로 접종받으며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고있는 형제산 구역의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 람들의 가슴가슴에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 의 정이 흘러넘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 사회

그 고결한 애국의 열의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펼쳐지는 최고인민회의 제 1 3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이들의 기 대의원선거의 화폭은 얼마

본사기자 방경찬

# 세상에 부럼없는 이 행복 안겨주신 아버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식령스키장에서 즐거운 스키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청소년학생들

#### 새 세대들에게 있으라 밝은 미래만

처음으로 나온 이 말이 우리 인 민들과 청소년들의 가슴속에 소 중히 자리잡던 그때로부터 흘러 온 날과 달은 길지 않다. 하지만 지금 마식령스키장에서 일어번 지는 대학생들과 소학교학생들 의 스키바람은 세찬 열풍으로 온 나라에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욱 높이 울 려퍼지게 하고있다. 마식령의

새 세대들로 흥성거리고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 서도 스키야영과 관련한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려 그리도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천연산악지대에 일떠선 세계 일

류급의 스키장이 조국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학생들을 위해서 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낳은 전설같은 새 화폭을 전하려고 우리는 평양을 떠나 기행의 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 대 한 김일성대 원 수 님 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후 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 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 울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 소 년단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 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 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 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흥그러운 마음을 안고 두시간 남짓이 취재용승용차를 타고 달 리느라니 어느덧 목적지가까이 에 도착하였다. 무지개동굴을

어가 스키장문주를 통과한 우리 는 차에서 내려 웅장한 마식령 스키장을 이윽토록 바라보며 감 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즈음에 는 보기 드문 흰눈의 세계가 마 식령스키장의 전경을 더욱 눈부 시게 하였던것이다.

우리를 반겨맞아준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일 군인 김창호동무는 며칠전에도 이곳 마식령지구에 많은 눈이 내려 스키야영생들의 즐거움을 더해주었다고 하였다. 그의 안 내를 받으며 대학생들과 소학교 학생들이 보금자리를 편 호텔의 여러 호실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가슴속에 뜨거운 격정이 밀물처 럼 파도쳐왔다. 마식령의 추위 와 대조되는 훈훈한 호실들, 넓 다란 호실마다 편리하게 놓여있 는 고급취대들과 침구들, 문화 정서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게 갖추어진 액정TV들과 록화기

득 쌓인 당과류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 행 복한 현실을 보시였더라면 얼마 나 기뻐하시라 하는 생각과 함 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의 뜻깊은 구절이 떠올랐다.

들. 야영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랭동기들과 그릇마다에 가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 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 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 … 어버이수령님의 이런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멀고 험한 전선길을

복넘친 야영소로 떠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식령지구에 또 하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화원을 가꾸어가고 계시지 않는가.

격정에 잠겨있던 우리의 귀전 에 오전스키운동을 마치고 들어 서는 야영생들의 즐거운 웃음소 리가 들려왔다.

우리와 만난 중구역 창전소학 교의 소년단지도원인 우금숙동 무는 말하였다.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되는바 가 큽니다. 이제 마식령스키장 까지 완공되면 마식령지구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것이라고, 현대 적인 스키장에서 웃고뗘들 인민 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혁명 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음성이 매일같이 가슴을 울려줍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학생들 이 스키타기를 충분히 배우도록 야영날자까지 정해주신 그 사랑 은 얼마나 고마웁고 나어린 학 생들을 여러명의 교원들이 함께 가서 보살퍼주도록 해주신 그 손길은 얼마나 따스하며 소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형님, 누나들 과 꼭같은 식사량을 정해주도록 하신 그 은정은 또 얼마나 웅심 깊은것인가.

얼마후 우리는 야영생들이 점 심식사를 하고있는 식당에도 들 려보았다. 풍성한 식탁에 마주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오늘을 위 불멸의 로고가 어려와 가슴이 더욱 젖어들었다. 호텔의 한 일 군은 야영생들의 생일날이면 더 특색있게 차려주기 위하여 식당 종업원들모두가 밤잠을 잊다싶 이 한다고, 안미경, 조일경동무

들을 비롯한 료리사들의 지성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긍지에 넘쳐 우리는 스키기재와 복장을 내

여주는 홀에서 과장 남홍규동무 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 스키장의 규모와 야영생 들에 대한 스키교육과정을 비롯 하여 많은것을 알게 되였다. 야 영생들은 스키교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스키타는 자세와 기초동 작을 배우다가 차츰 전제동지쳐 내리기와 돌아내리기, 두스키평 행돌아내리기 등의 스키기술을 배우는데 야영기간이 끝나갈 때

가 되면 모두가 주로에서 기재

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지쳐내려

온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우리는 야영생들의 오후스키운동이 진행되는 초, 중급주로에도 가보았다. 주로 좌우측에는 령마루로 오를수 있 게 승강기와 끌림식삭도가 갖추 어져있었다. 아찔한 주로우에서 스키를 타고 지쳐내려오는 야영 생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은근히 우리의 가슴을 조이게 하였다. 하지만 얼마나 이악하게 배웠는 지 야영생활 며칠밖에 안되는 소학교학생들도 제법 뽐내며 스

그지없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듯 남 홍규동무는 자기도 처음 나어린 학생들까지 어느새 스키타기묘

키타는 모습은 볼수록 대견하기

리를 터득하고 주로를 따라 지 쳐내려오는것을 보고 놀랐다 고, 지난해 백두산지구체육촌을 찾으시여 마식령스키장의 오늘 을 그려보시면서 스키는 체력단 련에도 좋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더욱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

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저녁은 또 저녁대로 야영생활 에 대한 감상발표회와 오락회, 군중무용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 내는 스키야영생들, 이들의 생 활은 단순히 행복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구역 창전소학교의 조령봉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 들이 스키야영의 나날에 지은 시 《사랑의 폭포 쏟아져요》 와 《행복의 최고봉》 등의 구절 구절을 새겨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기어이 보답해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수 없는 행복의 화폭이였다. 사회주의문 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청소년학 생들의 눈빛에서 우리는 모든 면 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 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 백두산 대국을 천만년 빛내가는 나라의 역군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날 우 리 후대들의 신념의 맹세를 감동

갈 야영생들의 열화같은 충정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깊이 읽을수 있었다.

우리의 기행은 여기서 끝났 다. 하지만 마식령지구에 끝없 이 울려가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보답의 메아리로 이어갈 우리 새 세대들의 미더운 성장의 모 습을 찾아 우리의 기행길은 계 속될것이다.

#### 감격의 바다를 이룬 학 부 형 회 의

3월 3일에 뗘나게 될 마 <sup>-</sup> 식岗스키야영과 관련하여 중 구역 창전소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는 학부형회의 가 진행되였다.

10

세계 일류급의 마식령스 키장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떠나보내게 된 사실만으로 도 학부형들의 격정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컸다. 하지만 담임교원인 김성필동무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의

## 식 당 에 서

스키야영이 시작된 첫날 마식령호텔의 식당에서는 《비상사건》이 일어났다. 중구역 창전소학교 3학년 3반 학급장인 윤성순학생이 수저를 들념을 못하고 고개 를 수그리고있는것이였다. 식탁에는 누구도 상상해보 지 못한 산해진미가 올라있

(그런데 왜 그럴가?) 다급히 학교교원들과 식당 의 료리사, 종업원들이 달려

었다.

왔다.

フ

耳

오

# 5 점 꽃

또 하루 즐거운 스키운동 을 마음껏 하고난 저녁 잠자 리에 들기 전에 학생들은 저 마다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한자한자 또박또박 적어 갔다.

희한한 스키장에서 동무 들과 함께 온 하루 즐거운 야영생활을 한 기쁨을 다 적 어두었다가 부모들에게 자 랑하려는 아이들의 동심이 그대로 일기장에 새겨지고

있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다. 이야기는 들을수록 꿈만 같 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모든 조건이 최상 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마식 령스키장이 학생들을 기다리 고있으며 그래서 부모들이 준비해줄것은 단 한가지도 없다는것이였다.

교실의 여기저기서 흐느낌 소리가 울리였다. 이 나라 천 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니다!)

## 벌 어 진

어디 아픈가, 구미에 맞지 않는가 등등 수많은 질문들 에 나어린 학생은 여전히 고 개를 수그린채 조용히 머리 를 가로저었다.

**톨랑, 뽈랑 식탁에 떨어지** 는 눈물방울을 보며 사람들 은 안타까와했다. 소녀는 떨 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무도 희한한 음식들을 마주하니 아버지원수님생각 이 나서 그립니다. 우리들을 이런 꽃방석에 앉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

## 웃 는

《오늘 우리는 주로를 오 르내리며 여러가지 동작들을 배웠다.

처음에는 아찔해서 다리가 떨렸다. 그런데 자꾸 타보니 힘들지도 않고 재미나기만 하였다. …이버지원수님께서 놓아주신 사랑의 승강기를 타고 초, 중급주로에 오르며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들을 나라의 왕으로 아끼고 사랑 하시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나도 동무들도 난생처음 훌

류한 호텔에 잠자리를 펴고

비기지 못할 경애하는 원수님 의 따뜻한 사랑이 너무도 고 마와 학부형들은 끝내 격정의 물목을 터치고야말았다.

며칠후 뻐스를 타고 스키 야영을 떠나는 자식들을 바 래우며 부모들은 마음속으로 웨쳤다.

(아, 경애하는 원수님은 대원수님들과 꼭같으신 우리 아이들의 위대한 학부형이십

## 《비상사건》

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모두가 울 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 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의 구절구절이 뗘올라 울었고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그토 록 마음쓰시는 아버지원수님 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울었다.

꿈만 같은 스키야영과 더불 어 성장의 키를 더욱 솟구치 는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도 호텔종업원들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다.

## 일 기 장

승강기를 타며 즐거운 스키 운동을 하는 꿈같은 행복을 누리고있지 않는가. 나는 앞 으로도 아버지원수님의 이 사랑, 이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

한 혁명인재가 되겠다.》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 이 비낀 학생들의 성적증 에 더욱 무성하게 피여날 5점꽃은 이렇게 야영생들 의 일기장에서도 밤하늘의 뭇별처럼 소리없이 웃고있 었다.

# 지새지 말아다오, 마식령의

리를 편 중구역 창전소학교의 학생들을 찾아갔을 때였다.

한 호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모여앉아 일기를 쓰고있었다. 나어린 이들의 앞날에 행복의 나날이 줄지어있으련만 오늘의 즐거운 하루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글줄을 달리며 사색하는 그

모습들이 대견스레 안겨왔다. 스키야영을 하면서 무엇이 좋 았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백운 룡, 김학연, 윤영흥학생들이 겨끔 내기로 꼽아댔다. 스키도 스키복 도 멋있다고, 호실의 침대도, 옷 장도 샤와도 좋으며 매일 먹는 음식과 과자, 사탕도 맛있다고. 마식령에 푹 정이 들은 모습

들이였다. 그들을 보느라니 조선소년단 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 국련합단체대회에서 축하연설 을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우리의 귀 전에 울려오는듯싶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동부들에게 세 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 고 합니다.》 정녕 우리 새 세대들이 누리

우리가 마식령호텔에 보금자 는 스키야영의 즐거운 하루하루 가 어떻게 마련되였던가.

우리 후대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 기시고 이 땅에 하나의 창조물 을 일뗘세우시여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후대

사랑이 안아온 행복이 아니던가. 마식령호텔의 일군이 들려주 더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1기때에도 그러했지만 2기 스키야영을 마치고 떠나는 날 학생들모두가 이곳을 쉬이 뜰념

을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힘과 용맹을 키우던 스키장을 다시 보고싶다며 그곳으로 달려 올라가기도 하고 보금자리가 펼 쳐졌던 호실도 한번 더 돌아보 고가겠다고 호텔의 층계를 오르

던 학생들, 진정 떠나기 아쉬워 눈물이 글썽했던 아이들… 아직은 철없는 나어린 학생들 조차 어이하여 그토록 집보다 여기 마식령에 더 정이 들고 이 굣을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로

여기게 되였던가. 스키야영의 나날 학생들이 먹 고자는 문제로부터 스키타는 정 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알아보 시며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 이 행복의 보금자리에 흘러들고 있었다.

친부모도 주지 못하는 그 사 랑에 보답하자고 열성껏 스키기 술을 련마하던 그 나날 나어린 가슴들마다 희망과 포부, 꿈도 더욱 커졌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이렇듯 령도자의 깊은 판심속에 학생소 년들의 스키야영이 조직되고 크 나큰 은정이 베풀어진적이 있었

정녕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매 일, 매 시각 따사로이 비껴흐르 는 곳이여서 그 어린 가슴들마 다에 그토록 귀중한 보금자리로

깊이 새겨진것이리라. 그래서 더더욱 환희롭게 안겨 오는 마식령스키장이였다. 태양 의 빛발아래 우리 후대들의 영 원한 보금자리로 누리에 끝없이 빛날 내 조국의 미래를 안아보 게 하는 가슴벅찬 행복의 활무

대였다. 우리 당이 마련해준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은 일기를

지새지 말아다오, 마식령의 밤아! 라고 글줄에 담아가는 작 은 가슴들에 마식령보다 더 크 고 높은 애국의 마음이 자리잡 고있었다.

야영의 즐거움과 랑만은 스키 장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저녁 마다 마식령호텔에서 스키야영 생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생활은 또 얼마나 랑만적인것이였던가.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에 대한 희열과 랑만은 인간의 자주적인 삶에 대한 긍지와 참된 삶을 빛내이기 위한 인간의 지향을 더욱 높

여준다. 》 학생들의 스키야영의 하루임 과가 끝날무렵 호텔정문으로 들 어서는 우리에게 청년동맹일군 들과 교원들,호텔종업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del>는</del>것이였다. 《방금 홀에서 춤판이 벌어졌 댔습니다. 소학교학생들이 춤을 한창 재미나게 추는데 구경하던 대학생들도 춤판에 뛰여들어 더 욱 흥이 났습니다.》

《기자동무들도 보았더라면 아마 글감이 저절로 떠올랐을겁 니다.》

듣고보니 아쉬움을 금할수 없

그러나 저녁식사를 마친 후의 학생들의 생활은 또 그것대로 이채로왔다. 스키장에 넘치던 희열과 랑만이 그대로 즐거운

저녁시간에로 이어졌다. 4층홀에서는 김형직사범

## 랑만이 넘치는 즐거운

대학 학생들과 평양콤퓨터기술 대학 학생들이 학습과 탐구의 나 날에 거둔 성과를 나누는 과학 탐구성과발표회가 열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탐구로 낮과 밤 을 이어가던 대학생들의 진취적 인 학습기풍이 여기 마식령에서

더욱 고조되는가싶었다. 김형직사범대학 수학학부 4 학년 김정석학생이 출연한 《수자식위상학의 콤퓨터도형 처리에로의 응용》이라는 토론 은 그 제목부터가 모두의 관심 끌어당기였다. 뒤이어 콤퓨터기술대학 프로그람공학 부 4 학년 1 반 박남현학생은 《체육선수운동능력평가프로그 란》이라는 제목으로 지지하게 설명을 해나갔다.걸그림도 척 걸어놓고 알기 쉽게 해설해가는 이들에게 모두가 열렬한 박수갈 채를 보내였다.특히 나라의 과 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피타게 노력해온 이들의 탐구정 신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서로가 관심하는 분 야인것으로 하여 허심하게 의견

을 나누며 리해를 깊이한 의의 있는 발표회였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최우등생 학급의 영예를 떨쳐온 자랑도 모습이 감동깊게 안겨왔다. 흥 펼치면서 마식령에서 맺어진 우

저녁이였다. 한편 아래층에서는 즐거운 오 락회가 벌어지고있었다. 유정한 노래소리에 이끌려 3층홀에 들 어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와 춤에 담

정을 더욱 두터이하는 뜻깊은

겨운 춤가락이 펼쳐지는가 하면 독창, 중창으로 끝없이 이어지 는 속에 터져오르는 박수갈채와 재청으로 오락회는 절정을 이루

고있었다. 《내 조국강산에 넘치는 노 래》. 《복받은 인민의 노래》 등 시대의 숨결이 높뛰는 노래

쳐 다같이 합창으로 부르는 야 영생들,

이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의 미 래를 위해 희한한 스키야영까지 마련해주신 절세위인에 대한 다 함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아버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 속에 즐겁게 보내던 마식령스키 야영의 저녁을 우리 새 세대들 은 한생의 추억으로 영원히 간 직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 조선문제에서 당장 손을 떼라, 미국은 우리 인민의 이 충고를 명심하는것이 좋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 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악

의에 차서 걸고들며 못되게 놀 아대는데 대해 조소를 금할수

# 이발뽑힌 도적개 짖는

지금 미국이 놀이대는 꼴은 꼭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고 도 놀란다는 속담을 현상케 한다. 도대체 미국이 우리를 걸고 그 무슨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고아댈 체면이 있는가.

얼마전 미국이 《B-52》전략 핵폭격기를 조선서해상공에 투 입하여 북침핵타격연습을 벌리 고 지금은 핵추진잠수함을 비롯 한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대량적 으로 끌어들여 침략전쟁연습의 화약내를 짙게 풍기고있는것은 도발이나 위협이 아니고 아이들 장난인가. 빠개놓고말해서 지금 까지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 을 밥먹듯 해온 호전광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의 방어형로케 트들의 훈련발사를 놓고 무슨 큰 변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 우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 난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며 악담을 줴쳐도 그것은 이발뽑힌 도적개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첨 단로케트들의 성능이 남김없이 과시된 지금 자기 힘에 대해 더 욱 긍지를 가지게 되고 필승의 신심을 날로 억세게 가다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승리는 바로 이렇게 마련되는것이다.

#### 제국에 악의 경고한디

요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따위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외교 더욱 가소롭게 여겨진다.

미국무장관 케리며 정 미국대 통령 부쉬따위의 어중이뗘중이 들이 게거품을 물고 우리에 대 해 《악》이니 뭐니 하고 악담질하 며 조국을 반역한 인간추물들을 《영웅》으로 개여올리는 추태까 지 부리였다는데 정말 어처구니 가 없어 말이 안나간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온통 정신 병자들이 살판치는 인간쓰레기 들의 오물장이다. 초보적인 판별 력도, 리성도 없이 전탕 허튼말 만 주어섬기는 막말장사군 케리 으로 헐뜯는것을 보면 미국이

우리는 그 무엇도 무서울것이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 홍철화

문제를 맡아보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저승길이 대문밖인 로 망병환자까지 내세워 천하에 둘 도 없는 인간쓰레기들과 입맞추

며 돌아가게 하는 미국의 정치

인들에게 한마디 하고싶다. 사

실 이 세상에서 온갖 못된짓만 골라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최 악의 불량배국가가 아닌가. 제 집안이 온갖 악의 소굴, 인 권의 불모지인 주제에 도리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

의제도를 입에 담지 못할 험담

치협잡군들의 소굴인가 하는것 을 다시금 톡톡히 알수 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정

미국의 망동은 가장 우월한 우 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목숨으로 끝까지 지켜싸우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줄뿐이다. 악의 제국에 경고한다. 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시비질하 며 도발을 걸어오는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이다.

지금 우리들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마구 헤덤비는 미제에게 선군조선의 강력한 무쇠주먹맛 을 보여주고야말 의지로 비상히 격동되여있다. 우리는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을 안고 원 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단매에 쳐부실 만단의 준비를 더욱 철

저히 갖출것이다. 철도성 평양객차대 정치부장 박성철

# 약자의 가련한 비명소리

발사를 《도발》이니, 《위반》이 니 하고 법석 떠들면서 여론을 어지럽히고있지만 우리는 적들 의 광란을 가련한 약자의 애달 픈 비명소리로밖에 여기지 않

이번 로케트발사훈련이 우리 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이고 주권 국가의 자주적인 권리행사인데 왜 그다지 놀라서 불맞은 승냥 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지 모르겠다.세상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있고 미싸일 발사도 제일 많이 하며 그것으 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유 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것이 미 국이 아닌가. 그런자들이 우리 가 로케트 몇발 쏜것을 가지고 바빠맞아 허둥지둥하는것을 보 면 그야말로 좀스럽기 그지

우리의 로케트발사훈련에 깜 짝 놀라 그리도 야단법석하는 미국이고보면 아마 그보다 더

지금 미국이 우리의 로케트 위력한 로케트가 우리의 대지 를 박차고 오를 경우 아예 까무 라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그 렇게 생각해보면 미국은 지금 저들의 유치한 망동으로 스스 로 자기 체면을 오물통에 처넣 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권리행 사를 놓고 계속 고약하게 놀아 대며 그 도수를 높일 경우 우리 도 달리 행동할수 없다고 본다. 불은 불로 다스리고 미친개에게 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라고 미 국놈들이 아예 혼비백산하여 나 자빠지게 가장 위력한 로케트들 을 지체없이 발사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지 이제 라도 똑바로 알고 세상을 웃기 는 추태를 작작 부려야 할것이 다. 이것이 강자로서 우리 인민 이 주는 마지막충고이다.

> 대외건설지도국 처장 최 현 성

# 논판의 돌괴잡듯 해치울것이다

미국이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아부재기를 치는 꼴은 볼수록 못된 악습을 또다시 드러내며 가관이다. 원쑤들이 우리의 정정

당당한 로케트발사훈련을 구실 가 한해농사지어 페농맞듯 할수 로 《제재》와 《봉쇄》를 떠들며 정 세를 악화시키고있지만 그것으 로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우리 는 지금껏 미국과 그 추종세력 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와 봉쇄 책동속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 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왔으며 벌 써 그 보람찬 투쟁의 덕을 크게 보고있다. 적들에게도 눈과 귀가 있을진대 로동당만세소리, 사회 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고있

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과연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도 미련을 품고 또다시 《제재》니, 《봉쇄》니 하고 악을 쓰고있으니 이 얼마 나 가련한자들인가. 실패에서 교 훈을 찾을줄도 모르는 이런자들 이 당국을 주무르고있으니 정사

밖에 더 있겠는가. 미국의 취약 성만 세계면전에서 더욱 낱낱이 드러날뿐이다. 미국이 아니라 그 하내비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며 핵추진 잠수함이니, 핵전략폭격기니 하 는것들을 들이밀어보라.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그 흉물스러 운 악귀들을 모조리 논판의 돌 피잡듯 해치울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 초선을 지켜선 긍지와 영예를 안고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고 나라의 쌀독을 가득히 채움으로써 적들과의 첨 예한 대결전에서 또다시 통장훈 을 부르겠다.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장 김 광 남

# 하의 삿대질인기

터무니없이 시비질하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지어 핵문제에 대해 서까지 이러쿵저러쿵 횡설수설 하고있는것은 실로 역스럽기 그

미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행동을 《위반》이니 뭐니 하고 악 담을 퍼부으며 여론을 어지럽히 고있는가. 세계에서 못된짓은 도 맡아하고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 명을 마구 짓밟는 날강도들이 누

구에게 감히 삿대질인가. 미국은 톡톡히 알아야 한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제멋대로 날칠수 있었지만 여기

미국이 우리의 로케트발사를 는 조선이다. 이 땅에서는 미국 의 위협과 압력에 움츠러들고 기를 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 들이 아니라 당과 수령, 사회주 의조국을 목숨바쳐 지키고 반드 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필승의 신심과 억척의 의지를 가진 군대와 인민이 살며 투쟁

하고있다.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덤벼들어도 백두산천출명장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일심단결된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 없다. 하기에 우리는 북침핵전 쟁연습의 총포성을 요란히 울리 며 허장성세하는 미제호전광들

을 발뒤꿈치의 썩살만큼도 여기

지 않는것이다.

아무리 발괏해보라. 그러다 자 기 맥만 뽑고 제품에 주저앉아 위한 보람찬 투쟁을 더욱 힘차 수치밖에 당할것이 없을것이다. 우리는 미제의 반공화국압살 책동을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으

나는 남녘땅에서 태여나 미제

로 쳐갈기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게 벌려나가겠다.

송전선건설사업소 작업반장 백기복

# 벳

의 식민지통치도 겪어보았고 미 국놈들이 강요한 지난 전쟁의 참화도 맛본 사람이다. 그 쓰라 린 체험을 통해 나는 미국식《인 권》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너무 도 잘 안다. 지난 전쟁시기 미제 공중비적들은 살길을 찾아 북으 로 향하던 나를 비롯한 숱한 민 간인들에게 수백발의 폭탄을 퍼 붓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강과 도로를 피로 물들였다. 사람의 피를 맹물만큼도 여기지 않는 미제야수들에 대한 복수의 절규 가 울려퍼지던 60여년전의 그 날을 오늘도 결코 잊을수 없다. 미제야수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형제자매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얼마나 많은 우리 겨 레가 침략자들에 대한 풀길 없 는 원한의 피눈물을 뿌렸던가.

그 더러운 털부숭이손을 우리 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미국놈들 이 도대체 무슨 체면에 그 누구 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하며 악청을 돋구는가. 우리 민족이 수십년세월 가슴아픈 리별의 고 통을 겪게 하는 지구상 그 어디 에도 없는 참극을 빚어내고도 도 리여 제편에서 《인전》나발을 불 어대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운

날강도무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반인륜성과 잔인성으로 악명 떨치는 미제의 본성은 예나 지 금이나 변함이 없다. 승냥이 미 제가 뒤집어쓴 양가죽에서는 피 비린내가 풍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 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것은 자기가 안겨사는 고마 운 제도에 대한 한없는 사랑, 죽 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회주의제 도를 버릴수 없다는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있기때문이다. 미국이 이런 신념과 의지의 강 자들이 철옹성같이 뭉친 우리 조국에서 그 무슨 《변화》를 바 라는것이야말로 마른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것만큼 어 리석고 부질없는짓이다.

만일 미국이 헛된 야망에 사 로잡혀 우리에게 함부로 덤벼든 다면 우리는 지금껏 다지고다져 온 선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피비린 승냥이소굴을 통채로 불 살라버리고야말것이다.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 연구사 오수산

# 인간추물들을 개여올리는 역겨운 추래

최근 남조선을 행각한 전 미국대통령 부 쉬가 핵문제를 운운하며 우리를 고약하게 걸고들고 《제재》나발을 불어댔다. 한편 그 무슨 《변화》니, 《인권》이니 뭐니 하며 조국 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가소롭게도 찬 양하고 추어주는 망발까지 줴쳐댔다. 부쉬 의 이같은 언동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하며 북남관계의 진전에 제동 을 걸고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 기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이로써 부쉬는 자기의 변함없는 반공화국 적대감과 임기내에 못 이룬 북침야망을 기 어이 이루어보려는 흉악한 속심을 낱낱이 드러냈다.

백악관에서 물러나 산송장이 되여버린 가련한자치고는 너무도 어벌뚝지가 크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제는 어지간히 로쇠하여 늙다리로 불리워야 할 처지에 대양건너 남 조선에까지 날아와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 고 불순한 여론을 내돌리며 대결광기를 부 린것을 보면 망녕이 든것이 분명하다.

부쉬가 우리 공화국을 얼마나 악의에 차 서 적대시하며 대결에 미쳐날뛰였는가 하 는것을 우리 인민은 톡톡히 기억하고있다. 이자는 지난 2002년에 일반서신연설이 라는것을 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감히 《악 의 축》이라고 헐뜯으며 우리와의 전면대결 을 선언하고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반공 않으면 안되게 된 미국의 처지도 참으로 가

화국고립압살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부 쉬의 《악의 축》폭언은 조미관계를 최악의 사태에로 몰아갔으며 북남대화의 파탄에로 이어졌다. 부쉬는 두번째 임기때에도 우리 를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면서 자기의 고 질적인 대조선적대시사고방식을 그대로 드 러내놓았는가 하면 리명박역도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적극 지지해주면서 동족간의 불신과 대결을 극도로 격화시키였다. 부쉬 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

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우리 민족의 철천

지원쑤이다. 이런자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핵문제가 어 떻고 《인권》문제가 어떻고 하며 주제넘게 놀 아대다 못해 지어 나라앞에 죄를 짓고 도망 간자들을 잔뜩 개여올리며 황당무계한 궤변 을 늘어놓았으니 이 얼마나 해괴한 추태인 가.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과 도의마저 저버 리고 자기의 고향과 부모처자들을 서슴없이 배반한 더러운 인간쓰레기들은 지금 남조선 에서조차 사람들의 비난과 따돌림의 대상으 로 되고있으며 타락과 절망에 빠져 조국반 역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그 역겹고 구린내풍기는 놈들을 찬양하는 부쉬도 지고있다.

같고같은 인간쓰레기, 정신병자가 분명하다. 치매증에 걸려 골방에 처박혀있는 추물 까지 동원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리지 련하다. 이것만 놓고서도 선군의 기치밑에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 앞에 미국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바빠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지금 미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 노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미국이 최근 핵추 진잠수함을 비롯한 전략핵무력을 끌어들여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략 적성격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우리 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도발》이 니, 《위반》이니 하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 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북남관계개선을 한사코 가로막고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위험천만 한 망동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체제, 일심 단결의 위력과 공고성,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의 승리적전진앞에 질겁한자들, 가련한 패 배자들의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군사적위협과 압력공세에 발광적 으로 매달릴수록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 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는 천백배로 억세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

승리를 기어이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albealbealbealbealbealbealbealbe

## 혼잡해지는 날 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 다고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면 6월초에 있게 되는 지방 자치제선거날자가 다가올수록 남조선의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CBS》방송은 지난 2월 24 일 민주당이 공천개혁을 핵심 으로 하는 당혁신안을 발표한 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민주당의 당혁신안은 당직 자선출에 대한 투표권확대와 《국민참여경선제》의 강화,부 정부패행위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및 제재조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있다고 한다. 그 에 대해 《새누리당》이 그러한 공천방법은 자기들이 먼저 제 안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측 《새누리당》의 공천은 현 집권자가 하는것이나 다름없 다고 반박하였다고 보도는 전

하였다. 한편 《KBS》방송은 안철수 의원이 새 당의 명칭을 새정치 련합으로 결정하고 창당준비위 원회를 결성한데 대하여 전하면 서 이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 주당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있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정치련 합이라는 명칭에 담긴 련합이라 는 표현을 놓고 야권련대에 대 한 경계심을 드러내놓았다. 이 와 반면에 민주당은 새정치련합 이 강력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 대한다고 하면서 지금 민중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민주세 력의 승리를 위해 모든 야당세

력이 하나로 힘을 합칠것을 요 구하고있다고 야권련대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지금 여야세 력들이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

서의 정당공천폐지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들이 첨예하게 대립 하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고있 다.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지난 2월 21일 《국회》정치개혁특 별위원회 민주당소속 위원들은 청와대에 찾아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페지라는 민중과의 약 속을 사실상 파기한데 대해 실 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하 면서 혀 집권자에게 정당공처페 지공약을 실행할것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하고 이것은 사실

상 최후통첩이며 마지막기회라

국내총생산액에서 농업이

## 고 밝히였다.

철수의 련대움직임에 대하여 주 목하면서 지방자치제선거의 최 대관심사는 야권련대여부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선거정

《KBS》방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련합 중앙운영위원장이 지난 2월 20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현 집권자가 정당공천 페지공약에 대한 립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사실을 전하면서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가 기자 회견에 함께 참가한 사실만으 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전하

《CBS》방송은 김한길과 안철 수가 지난 2월 27일 또다시 만나 정당공천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인터네트신문인 《자주민보》 는 통합진보당도 선거대책위원 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선거 및 《정권》퇴진운동에 나선데 대 하여 보도하였다.

이러한 속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련합 중앙

롯하여 주요도시들과 여러 지방

들에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건

운영위원장이 3월 2일 오전 남조선언론들은 민주당과 안 《국회》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 을 열고 신당을 창당해 통합하 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한 소식을 《CBS》방송이 전하였다.

이어 량측은 3월 5일 첫 지 도부련석회의를 열고 량당의 리 익에 관계없이 선거에 각측에서 가장 적합하고 위력한 후보들을 내기로 하였다. 김한길과 안철 수는 두 세력의 런합이 앞으로 《정권》교체의 시금석이 될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민주당과 새정치련합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후속조치들을 련속 취하는데 대해 《새누리 당》은 《야합》이라고 공격해나 섰다. 《KBS》방송은 《새누리당》 대변인이 《야권짝짓기》, 《안철 수의 새정치련합이 민주당 입당하는 격》등으로 야권통합

을 비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둘러싼 여야사이의 대 립과 갈등, 각 정치세력들의 적 극적인 움직임은 정국의 커다 란 변화를 예고해준다고 평하

본사기자 김 현 철

#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도이췰란드의 수사당국이 이전 오슈벵찜수용 소 간수였던 자국민 3명을 구속하였다.

가택수색과정에 그들이 히틀러나치스친위 대 대원이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압수 되였다. 그 내용을 세밀히 조사한 결과 그들 에게 수용소에서 학살만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혐의를 받고있는 3명중 한명은 88살, 나머지 2명은 90살이상으로서 모두 고령이 지만 수사당국의 엄격한 감시하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 2 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크게 느끼고있는 도이췰란드정부 는 나치즘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을 미화하고 선전하는 행동들을 금지시키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전범자들을 추적,

적발하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같은 전범국인 일본에서는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있는가.

당국자들이 앞장서서 로골적으로 야스구니진 쟈참배놀음을 벌리고있다. 일본집권자는 지난해 초에 《기미가요》를 부르며 이것이 《일본을 되찾 는 첫걸음》이라고 줴쳐댔다. 년말에는 야스구니 진쟈를 참배하였으며 올해벽두부터 《강한 일본》 을 되찾는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고아대며 군국주 의바람을 일구고있다. 이것은 침략력사를 옹호하 고 되풀이하려는 군국주의야망의 집중적표현

일본반동들은 일제가 패망한것은 《힘이 약했 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위대》무력을 끊임없이 증강, 현대화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파견하는 등 군사적해외팽창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실현을 가로막는 거치장스러운 법 적,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고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종결후 국제사회가 일본과 파 쑈도이췰란드에 징벌조치를 취한것은 인류를 반 대하여 전쟁범죄를 저지른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어 다시는 그러한 파국 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 이 있었다.

일이 바로되자면 일본도 과거 죄행에 대해 깊 이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였어야 하 였다. 지난날 일제가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범죄

는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 의것이다. 특히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세계가 공인 하고 규탄하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세계굣굣에서 발견되고있는 수많은 자료들과 증거물들은 일제침략군의 잔인성과 악랄성을 만

천하에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문제는 부인할수 없는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이에 대해 성근하 게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과거범죄를 전면부 정,외平하며 그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급급하고

과거의 침략력사를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 의 교활한 술책에는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야망이 깔려있다.

세월이 흘렀다고 지난날 저지른 과거죄행을 절 대로 유야무야 할수 없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반인륜적범죄에는 절대로 시효가 있을수 없다. 침략력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치는 일본반동들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행 위는 일제에 의해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피해를 입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대일증오심을 배가해주고있다.

일본이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광분하는것은 제 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자살적망동이다.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환거리,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죄악의 력사를 되살리려 하는자들에게는 준 엄한 징벌이 가해지기마련이라는것을 일본당

국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일본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 죄를 부정하며 미화분식할것이 아니라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는것으로써 력사의 새 출발을 하여야 할것이다.

리 현 도

지금으로부터 51년전인 1963년 3월 8일은 수리아 인민의 력사에 아로새겨져있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바로 이날 수리아의 애국적군 인들과 인민들은 아랍사회부흥 당의 지도밑에 부패무능한 정권 을 뒤집어엎고 새 정권을 수립 하였다. 새 정권의 탄생은 자주 와 평화, 진보와 번영을 지향하 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지난 기간 수리아인민은 제국 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압력과 제 재책동을 짓부시며 낡은 사회의 유물을 가시고 사회적안정과 경 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 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들의 투 쟁과 노력에 의하여 나라의 면 업생산을 좌우하는 기본요인 모는 크게 달라졌다. 식민지통 으로 되고있다. 인구의 약

치의 후과가 가셔지고 민족경 6 0 %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제의 토대가 축성되였다. 2 7 %정도를 차지하고있다. 주

수리아에서는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민족경제가 건설되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 되였다. 알곡생산에 절실히 필 요한 린자원이 풍부한 수리아는 한 공업발전에도 큰 힘이 돌려

# 孙平及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 지고있다. 수리아정부는 원유 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생산을 늘 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해마 다 260만t의 린비료를 생산 하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 막 또는 반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리아에서 물문제는 농

요농작물은 밀,보리,강냉이, 목화,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원유와 천연가스채취를 비롯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부문에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있 으며 원유탐사와 새 유전개발사 업에 힘을 넣고있다. 원유매장량은 30억bbl이다. 다른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도

के व

보존관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고대력사 여러점이나 발굴되였다.

설되고있다. 과학기술과 민족교육사업이 발전하고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전진이 이룩되였다.

오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수리아는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자랑스러운 력사와 문화전통 을 빛내여나가는것은 나라의 자

고있다. 하는 유리공장이 건설된것을 비 주권수호와 뗴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최근 수리아정세는 이 나 라에 대한 외세의 내정간섭과

침략책동이 끝나지 않았다는것

을 보여주고있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책동은 날로 더 욱 강화되고있다. 그들은 중동 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수리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고립압살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 다. 그러나 반제자주적립장이 강한 수리아인민을 그 무엇으로 써도 굴복시킬수 없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 유적유물이 최근년간에만도 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투쟁 은 좋은 결실을 맺을것이다.

구조를 개변시켰

#### 로씨야가 제 로씨야의 영상을 개선한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22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

강화되고있다.

회를 계기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 고 국가의 영상을 개선하였다. 지난 2월 7일부터 쏘치에서 개막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는 자기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

치고 페막되였다. 페막식에서 쏘치겨울철올림 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은 로씨야가 력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를 페막한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자기 의무를 수행하였으며 자기 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언명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로씨야가 이번 경기대회준비사 업을 7년동안에 해냈다고 하면 서 그 성과적보장에 크게 기여 한 로씨야정부와 로씨야인민들 에게 사의를 표시하였다. 페막식에서는 《로씨야에 대한 자기의 유구한 력사와 다양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쏘치겨울철 문화를 세계앞에 과시하였다. 외신들은 이번 쏘치겨울철올 림픽경기대회를 두고 로씨야가 자기의 영상을 개선하고 큰 성

과를 거두었다고 전하였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은 쏘 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와 판 련하여 로씨야를 무근거하게 비 난하였다. 그것은 국제정치분야 에서, 지정학적견지에서 로씨야 를 경쟁자로 본데 있다. 하기에 이번에 로씨야는 그러

한 비난이 날조이라는것을 쏘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적 보장으로 세계앞에 증명하였다. 아르메니야수상은 로씨야수 상과의 상봉에서 로씨야가 이번 에 단결을 과시하고 새로운 정 신을 느끼게 하였다고 하면서 인상》이라는 주제의 폐막공연이 기록적인 사변으로 평가하였

진행되였다. 공연에서 로씨야는 다. 프랑스, 벨라루씨를 비롯한 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를 진심 으로 축하하였다.

년간생산능력이 14만t에 달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은 《새 롭게 변모되고 재평가된 로씨야 를 위한 장엄한 선률로 된 개막 식》, 《개막식은 쏘치겨울철올림 픽경기대회에서 로씨야가 거둔 첫 승리》,《3시간동안 진행된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 식은 로씨야문화의 아름다움과 로씨야사람들의 정신력을 강조 하였다. 》라고 하면서 로씨야가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사실상 로씨야는 이번 쏘치겨 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였다. 결과 로씨야력사상 가 장 큰 성과를 거둔 경기대회로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로씨야는 이번에 쏘치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1 3개의 금메달과 11개의 은메달, 9개의 동메달을 따내여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로씨야대통령은 경기대회에 서 우승한 체육인들과 상봉하고 그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 후 이번에 로씨야의 새로운 다방면 적인 발전면모를 과시하고 로씨 야체육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전 민족적체육명절로 되게 하려던 의도가 실현되였다고 하면서 대 중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 였다. 메드베제브수상은 국제적 인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력사상 이번 경기대회가 가장 성공적인 사업들이 계획되고 적극 추진되 대회로 되였다고 평가하였다. 로씨야는 이번에 쏘치의 하부

다.이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수송, 에네르기, 환경하부구조 망이 꾸려지게 되였으며 대기가 스방출량을 2007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이였다.

또한 쏘치에 훌륭한 체육선수

양성기지를 건설하였다. 기술적

으로 완성된 2개의 도약경기장

을 건설하였으며 다른 지역들에

도 세계적수준의 도약대를 건설 하였다. 오늘 쏘치는 사계절 판광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 자기 면모 를 일신하였다. 로씨야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쏘치시발 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후

쏘치시를 로씨야의 대규모관광 및 체육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있다. 본사기자

편 집 위 원 회